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2015. 12.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제 출 문

본 「2015년도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의원 정준이

참여 연구진

○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회원

대표 정준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회원 장승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

이충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경자 세종 YWCA 부이사장

전석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장

간사 임비호 세종 YMCA 시민환경분과위원장

○ 관계 기관

전석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장

김성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창의진로과장

이능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

○ 행정 지원

천의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진례

주무관

목 차

I. 인사말, 환영사, 축사	1
II. 연구모임 추진계획	9
1. 목적	11
2. 사업개요	11
3. 세부사업계획	12
4. 기대효과	15
III. 그동안 활동상황	17
IV. 운영 성과	51
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53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환경교육 진흥조례	59
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65
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77
V. 참여 연구진 정책 제언	193

I . 인사말, 환영사, 축사

인 사 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21만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시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 정준이 의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 공교롭게도 입춘(2월4일)에 시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발족했는데 어느덧 벌써 입동(11월8일)이 지나고 첫 눈도 내렸고 이제 추운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야 하는 완전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선2기 의원으로써 명품도시 세종시민을 위하여 가장 최우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장군면의 환경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원룸, 토지개발 등으로 환경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아름다운 푸른 강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려는 마음에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오랜 환경 전문가들이 함께 모임을 구성해 지난 11월까지 보람을 갖고 활동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 신분을 부여받은 첫 해 지난 2014년도 제22회 임시회 본회의 (8월29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명품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 정책이 우선 시행”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한번 파괴된 환경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세종시를 계획도시로 조성함에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광역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배려하고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보전 계획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만큼 본 의원은 무엇보다 인위적인 환경훼손을 반대하며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그 동안 제6차에 걸쳐 연구모임 기간 동안 천안·경남통영 우수 환경센터 현장방문, 세종시 환경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환경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당초 목표한 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 소관의 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을 지난 11월에 제정하였고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로 하여금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안 기본구상」의 방향성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세종시민 스스로 환경보존을 실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등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의 세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리는 마중물 같은 소중한 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의원 정 준 이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상전입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의원 저마다 각 전문영역에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지역 환경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는 등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연구 모임을 결성하여 10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종합계획 수립방안 등 성과물을 한데 묶어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환경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연구 모임 활동에 헌신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여러분야에 걸쳐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는 출범이후 급속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자라나는 청소년과 교육계의 환경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결성한 이번 환경교육 연구모임은 환경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이 끝날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이행을 통해 시민 지도자와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교육, 환경교사 교육 및 유아 환경교육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지역사회 실정에 적합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세종시 환경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연구 모임을 이끌어 오시고 이번 보고서 발간에 노력해 주신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보고서가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녹색비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 상 전

축 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먼저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의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의원님들의 땀과 열정이 일구어낸 결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에 그 어떤 자료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종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신 정준이 대표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만년동안 1℃이상 변한 적이 없었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근 100년간 0.74℃나 올랐습니다.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2℃ 상승하면 지구상의 생물종 가운데 20%가 멸종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해법은 우리 모두가 ‘사람과 자연생태계가 더불어 사는 필요한 가치, 행동능력,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적 감수성과 생명 존중 자세 등을 갖추고, 배려와 협력을 배우는 환경교육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더불어 살아가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자세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의회가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솔선수범하고 있는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계곡이나 능선 등 자연지형물을 살리며 동·식물 서식 공간 보전 등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교육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태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 춘 희

축 사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전월산에 단풍잎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금강변의 억새가 멋진 늦가을입니다.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에서 그동안 6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하여 세종시 환경교육 발전에 많은 기여와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 드리며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특히, 환경교육 연구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 정준이 시 의원님을 비롯한 이충열, 장승업 시의원 이하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연구모임에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차수철님, 박경자님, 전석천 세종시청 환경정책 과장님 등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금강이 흐르고 원수산, 괴화산 등 주변에 입지가 좋은 환경에 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의 동전처럼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쾌적한 행복도시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일선학교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중학교 학생들의 KEI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에서 이루어진 많은 결실들을 통하여 우리 시가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종시 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 정준이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연구 모임 성과 보고서를 발간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최 교 진

축 사

‘누구나 꿈꾸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을 기대하며’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계획된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세종시 환경교육 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경주해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애쓰신 정준이 시의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주거생활의 냉·난방, 쓰레기, 자동차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 가스로 지구 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연구 활동은 ‘행복도시 세종’의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과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행복도시 세종’은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공원 면적 약 69만㎡, 수면적 32만㎡, 담수량 51만톤)과 중앙공원(141만㎡) 등 곳곳에 녹지 공원으로 도시의 52%를 녹지로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숲 유치원 도입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와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면서 도시 시설물들에 대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자연·환경·사람이 친화되는 생활공간으로 세계적인 친환경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들에 대한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 새싹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 건립,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도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세종시 환경교육 연구 모임’ 활동 결과 보고서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 충 재

Ⅱ. 연구모임 추진계획

II 연구모임 추진계획

1 목적

- 지속가능한 세종시를 위한 환경교육 자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세종시에 적합한 환경교육종합계획 전략을 수립하고
-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와 세계적 환경수도를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으로 법적 제도적 방향성 모색
- 회원 상호간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매칭 및 연구 지원을 통한 연구 모임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연구모임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 연구과제명 : 세종시 환경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 대표자 : 정준이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 사업대상 : 세종시민 등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1월
- 소요예산 : 5,000천원
- 사업내용
 -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원실태 조사 및 전략 수립,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전문가 매칭을 통해 과제 수행
 - 세종시 환경교육 제도적 구축을 위한 간담회 또는 현장방문 그리고 포럼 활동
 -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3 세부사업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세종시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연구 및 모임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및 활동비 지원(수시)
 - 연구회 구성 발족 모임 및 정기 모임 및 추진
- 사업비 : 1,000천원

2) 세종시 환경교육 자원 실태 조사 및 분석

- 사업개요 : 세종시 환경교육 자원 실태 조사 및 분석
- 사업내용 : 전문가 조사 및 분석(조사비, 분석비) 및 추진
- 사업비 : 1,000천원

3)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개요 : 모범 환경교육 센타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내용 : - 선진 환경교육 센타 방문
 - 포럼 또는 토론회(지원조례 등) 개최 및 추진
- 사업비 : 2,000천원

4) 발간 보고서 배포

- 사업개요 : 연구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연1회-인쇄비) 및 추진
- 사업비 : 1,000천원

5) 사업추진 일정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계획 제출(2015년 1월)

○ 연구회 발족식 및 제1차 정기 모임

- 일 시 : 2015년 2월 23일 11:00~12:00
- 장 소 : 세종시 의회 소회의실(3층)
- 내 용 : 세종시 주요 환경시설 현황 및 한국환경교육 흐름 공유

○ 세종시 환경교육 자원 실태 조사

- 기 간 : 2015년 2월 ~ 7월
- 조 사 자 : 임비호(세종 YMCA 시민환경분과 위원장, 환경교육연구회 간사)
- 내 용 : 자연생태,환경기초시설,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등의 현황조사/
세종시 환경보전 종합 계획등의 환경교육 관련 문헌 조사 /
타 시도의 환경교육 현황을 통한 세종시 방향성 제시/
- 활용방안 : 세종시 환경교육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 제2차 우수 환경교육센터 현장 방문

- 일 시 : 2015년 3월 31일 10:00~14:00
- 장 소 : 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 내 용 : 센터 설립 과정 및 운영 청취/세종시와의 적용 토의
- 인 원 : 20명(연구회 및 환경교육 유관단체)

○ 제3차 우수 환경교육센터 현장 방문

- 일 시 : 2015년 4월 24일 09:00~18:00
- 장 소 : UN지속가능발전통영센터, 통영RCE생태공원
- 내 용 : 센터 설립 과정 및 운영 청취/세종시와의 적용 토의
- 인 원 : 20명(연구회 및 환경교육 유관단체)

○ 제4차 정기 모임

- 일 시 : 2015년 7월 23일 16:00~17:30
- 장 소 : 세종시 의회 소회의실(3층)
- 내 용 : 세종시 사회·학교환경교육 자원 실태 파악
- 참 석 자 : 10명 내외(연구회원 및 교육청 환경 교육 담당)

○ 제5차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 주 제 :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일 시 : 2015년 9월 24일 14:00~16:00
- 장 소 : 세종시청 대강당
-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의회
- 주 관 : 세종시 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세종YMCA
- 후 원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 참 석 자 : 100명 내외
- 발표자 및 패널 :
 - ▶ 발제(1명) : 이 재 영(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 ▶ 토론(6명))
 - 좌 장 : 정 준이(세종시 의회)
 - 토론자 : ① 세종시 시민안전국장(세종시 환경교육 기반 현황 및 비전)
 - ② 세종시교육청 창의진로과장(세종시 학교 환경교육 현황 및 비전)
 - ③ 건설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행복도시 내 환경교육 기반 조성 현황 및 비전)
 - ④ 한국숲유치원협회 이경순 세종지회장(세종 유아시설 환경교육 현황 및 전망)
 - 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권규 협의회장(세종 환경교육 활성화 제언)
 - ⑥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차수철 운영위원장(세종 환경교육 기반구축 및 제도화 제언)

○ 제6차 정기 모임 및 유관 단체 간담회

- 주 제 :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 검토
- 일 시 : 2015년 11월 3일 10:30~12:00
- 장 소 : 세종시 의회 소회의실(3층)
- 참 석 자 : 20명 내외(연구회원 및 환경교육 유관 단체)

○ 연구회 보고서 발간 · 배포(2015년 12월)

- 일 시 : 2015년 12월
- 장 소 : 세종시 의회 소회의실(3층)
- 내 용 : 연구회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로 연구성과 공유/조례 및 건의서 채택
- 참 석 자: 10명 내외(연구회원 및 환경교육 유관 단체)

4 기대효과

- 세종시 환경교육을 위한 자원조사를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세종시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제도적 법적 기반 조성을 할 수 있음
- 세종시 의원 연구회 활성화로 연구하는 의회 만들기 성과 창출

< 회원명단 >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연락처)
대 표	정준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H · P) 010-5657-3545
간 사	임비호	세종 YMCA 시민환경분과 위원장	(H · P) 010-9045-4626
회 원	장승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H · P) 010-6602-9239
회 원	이충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H · P) 010-5277-2391
회 원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운영위원장	(H · P) 010-3373-2535
회 원	박경자	세종 YWCA 부이사장	(H · P) 010-4047-5400
회 원	전석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장	(H · P) 010-5499-3689

Ⅲ. 그동안 활동상황

Ⅲ 그동안 활동상황

제1차

연구모임 발족식 및 향후 발전방향 토의

□ 개 요

- 일 시 : 2015. 2. 23.(월) 11:00 ~ 13:00
- 장 소 : 시의회 소회의실 (3층)
- 인 원 : 10명
 - 시의원 (3명) : 정준이 의원, 장승업 부의장,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
 - 시민단체 (3명) :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임비호 세종 YMCA 시민환경분과 위원장
박경자 YWCA 부이사장
 - 공무원 (4명) : 녹색환경과장, 산업건설위 전문위원실 3
- 진행흐름 : 인사말씀 → 주제설명(환경교육 대상시설 등) → 토의 등

□ 주요 논의내용

- (위원장) 환경은 사전 예방 매우 중요하지만 환경교육의 체계적·효율성이 낮은 실정으로 이를 위한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 노력 필요
- (차수철) 전국 최초로 의회 차원에서 환경 연구회를 발족하고 자발적인 의원 참여 기능은 매우 뜻깊은 사례로 보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겠음
- (이충열) 세종시 출범이후 급속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모임의 적절성과 우리 시가 환경의 으뜸도시로 발전되길 기대
- (윤석기) 환경민원 감소를 위해 현장중심 환경교육에 적극 노력을 하겠음

□ 향후 추진과제 제언

- 세종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 세종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정
- 환경교육 시범학교(초·중·고)지정·운영 및 환경교육 학회 발족
-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및 전국단위 환경행사 유치 등

2015년도 연구모임 추진 일정(안)

개최 시기	건 명	장 소	인 원 (대상)	주 요 내 용	비 고 (회기)
1월중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계획 제출				제26회 1.28-2.06
2월 23일 11:00~12:00	▲ 연구회 발족식 (제1차)	세종시 의회 소회의실(3층)	10명 (연구모임 회원)	세종시 주요 환경시설 현황 및 한국환경교육 흐름 공유	
2월 ~ 7월	▲ 세종시 환경교육 자원 실태 조사			연생태, 환경기초시설,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등의 현황조사/ 세종시 환경보전 종합 계획등의 환경교육 관련 문헌 조사 / 타 시도의 환경교육 현황을 통한 세종시 방향성 제시	
3월 31일 10:00~14:00	▲ 환경교육센터 현장 방문 (제2차)	천안광덕산 환경교육센터	20명 (연구회원 및 환경교육 유관단체)	센터 설립 과정 및 운영 청취/세종시와의 적용 토의	제27회 3.04-3.10
4월 24일 09:00~18:00	▲ 우수 환경교육센터 현장방문 (제3차)	UN지속가능 발전통영센터, 통영RCE생태공원	20명 (연구회원 및 환경교육 유관단체)	센터 설립 과정 및 운영 청취/세종시와의 적용 토의	제28회 4.01-4.15
5월~6월	▲ 세종시 사회·학교 환경교육자원 실태 파악			세종시 사회·학교 환경 교육 자원 실태 현황 및 방향성 파악 (조례 제정 준비, 환경교육 종합 계획, 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제29회 5.14-5.28 제30회 6.03~6.04
7월 23일 16:00~17:30	▲ 연구회 정기 모임 (제4차)	세종시 의회 소회의실(3층)	10명 내외(연구회원 및 건설청 환경 교육 담당)	세종시 사회·학교 환경교육 자원 실태 파악 .	제31회 6.15-7.15
9월 24일 14:00~16:00	▲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제5차)	세종시청 대강당	100명 내외	▶ 발제(1명) : 이 재 영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 토론(6~7명)) - 좌 장 : 정 준이(세종시 의회) - 토론자 ① 세종시 산업경제국장 (세종시 환경교육 기반현황 및 비전) ②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세종시 학교 환경교육 현황 및 비전) ③ 건설청 도시계획국장 (행복도시 내 환경교육 기반 조성 현황 및 비전) ④ 세종시의회 환경교육연구회 간사 (세종시 사회 환경교육 현황 및 비전)	제32회 9.02-9.14
11월 3일 10:30~12:00	▲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 검토 (제6차)	세종시 의회 소회의실(3층)	20명 내외(연구회원 및 환경교육 유관 단체)		제33회 10.14-10.21
11월 말	▲ 연구회 보고서 발간 · 배포		10명 내외 (연구회원 및 환경교육 유관 단체)	연구회 활동 보고 및 보고서 발간/ 조례 및 보고서 채택	제34회 11.16-12.16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 23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에 참여한 회원들과 23일 오전, 기념촬영을 가졌다.



2015년 02월 23일 (월)
종합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첫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의원연구모임회원들이 23일 첫번째 모임을 가진 뒤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News1

(세종=뉴스1) 신현구 기자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의원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은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에 대한 첫번째 모임을 갖고 세종시의 환경보호를 위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표의원인 정준이 의원을 비롯해, 장승업 부의장,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외부인사로는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임비호 푸른세종 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간사), 박경자 YMCA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충청투데이

2015년 02월 24일 (화)
15면 지역



세종시의회 환경교육의원 연구모임이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환경교육 자원에 대한 제반 실태를 조사에 따른 전략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첫 회의...시설 현황 등 논의

세종시의회는 23일 세종시 환경교육의원 연구모임이 세종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환경교육 자원에 대한 제반 실태를 조사에 따른 전략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정준이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승업 부의장,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임비호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간사), 박경자 YMCA 부이사장, 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환경시설 현황'과 '한국 환경교육 흐름과 이해'를 주제로, 토론 및 향후 활동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준이 대표의원은 "회원 모두가 환경 파수꾼으로 앞장선다면 세종시 역점 시책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 조성 을 앞당겨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명품도시 세종에 대한 더 큰 희망의 시대가 찾아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11@cctoday.co.kr

제2차

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현장방문


□ 개 요

- 일 시 : 2015.3.31.(화) 10:00~14:00
- 장 소 : 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 인 원 : 7명(정준이 대표의원 외 6명)
- 안 건 : 시민 주도형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시설 관람과
환경교육센터 설립과정 및 프로그램 운용 청취

□ 주요 논의내용

- (정준이) 세종시의 급속한 개발사업으로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현장방문을 통하여 우리 시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됨.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시의 고유한 환경교육센터 건립 필요
- (차수철) 환경문제의 사회적인 심각성을 생각할 때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임비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세종시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 환경교육 지원, 세종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방문지 현황

방 문 지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537번지 ○ 면 적 : 대지 1,590㎡ / 건물 382.5㎡ ○ 직 원 수 : 6명(활동가) ○ 사업기간 : 2006년 착공, 2009. 6. 4. 개관 ○ 시 설 : 교육시설 숙박시설 숲 탐방로 등 ○ 특이사항 : 생태건축 설계와 기법 적용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 31일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설명 청취.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에 참여한 회원들과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앞에서 기념촬영

대전투데이

2015년 04월 02일 (목)
02면 종합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광덕산 현장 벤치마킹

시민 주도형 환경교육 시설견학과 운영상황 전반 청취... 관계자들과 질의·답변 시간 가져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 정준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경우 급속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시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공동체 건설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차수철 사무국장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환경문제를 꼽을 수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환경교육에 투자하는 물적, 인적, 재정적 수준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단체 그리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 정준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경우 급속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시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공동체 건설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2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워크숍 및 현장방문 활동 등을 통해 환경교육 자원실태 조사 및 전략을 수립하여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이정복기자

충남일보

2015년 04월 02일 (목)
04면 지역

세종시의회,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벤치마킹

환경교육 연구모임, 운영상황 청취·질의·답변시간 가져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은 최근 지자체 수범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충남 천안소재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해 시민 주도형 환경교육 시설견학과 운영상황 전반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차수철 사무국장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환경문제를 꼽을 수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준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경우 급속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

한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시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7명의 회원으로 구성해 지난 2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워크숍 및 현장방문 활동 등을 통해 환경교육 자원실태 조사 및 전략을 수립해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세종 = 서종권 기자 sjg0133@naver.com

15.7 X 9.6 cm

제3차

경남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현장방문


□ 개 요

- 일 시 : 2015.4.24.(금) 09:00~19:00
- 장 소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등
- 참석자 : 정준이 대표의원 외 10명 * 간사 : 임비호(세종 YMCA 시민환경분과위원장)
- 의 원 : 정준이 대표의원 <불참 : 장승업 · 이충열의원>
- 시 민 : 차수철(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경순(숲유치원세종지회장)
김정례(세종시자연보호협의회 운영위원), 김지훈(장남들관환경지킴이)
김기완(아시아타임즈)
- 시 청 : 윤석기 녹색환경과장
- * 의 회 : 산업건설위원회 천의교 외 2인
- 안 건 : 유엔 지속가능발전 교육 통영센터의 기능과 역할 및
통영RCE자연생태공원 설립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청취

□ 세부 일정

09:00 ~ 180'	12:00 ~ 13:00 10'	13:10 ~ 15:30 5'	15:35 ~ 16:00 180'	19:00 ~
의회출발	⇒ 오찬	⇒ 시설관람 및 프로그램 청취	⇒ 동파랑 벽화 마을 방문	⇒ 의회도착 (해산)
(의회봉고차) 이동	(식당)	이동 (통영RCE자연생태공원)	이동 (동파랑 벽화마을)	이동 (의회)

□ 방문지 현황

방문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해안로 116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건축연면적 4,838㎡) ○ 사업기간 : 2007년 착공, 2014. 12.31 준공 ○ 개관 : 2015. 5. 23.(예정) ○ 시설 : 수서체험동, 방문자센터, 습지생태원 등 ○ 기능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회의장면>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 24일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를 현장방문 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 24일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를 현장방문 하여 시설관람 및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있다.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이 지난 24일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를 현장 방문, 관계자로부터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종시의회 ‘유엔발전교육 통영센터’ 방문

환경교육 연구모임 의원들

세종시환경센터 설립 벤치마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 정준이 의원)이 지난 24일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와 적합한 환경교육 전략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 통영 RCE 자연생태공원 설립 과정 및 지속가

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청취했다.

RCE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구현에 필요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확산을 위해 유엔대학(UNU)에서 세계 각지에 조직한 지역전문교육센터이자 지역 전문기관들의 네트워크로 현재 전 세계 135개 RCE도시가 있다. 국내에는 통영시가 2005년 세계 8번째 RCE로 지정된 바 있으며 총 4개소가 있다.

정준이 의원은 세종시는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커감에 따라 자원 절약과 자원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원재활용을 시민생활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시 환경교육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알찬 기회가 되었다며 향후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규모>

충청투데이

2015년 04월 28일 (화)
15면 지역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세종시의회 환경 연구모임 방문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은 27일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와 세종시에 적합한 환경교육 전략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를 방문, 센터의 기능과 역할, 통영 RCE 자연생태공원 설립 과정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RCE’란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에 필요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확산을 위해 유엔대학에서 세계 각지에 조직한 지역 전문교육센터이자 지역 전문기관들의 네트워크로 2015년 3월 현재 전 세계 135개 RCE 도시가 있으며 국내에는 4개소로 통영시가 2005년 세계 8번째 RCE로 지정된 바 있다.

정준이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커감에 따라 자원 절약과 자원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원재활용을 시민생활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며 “향후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제4차

환경포럼 준비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개 요

- 일 시 : 2015.7.23.(목) 16:00~17:30
- 장 소 : 시의회 소회의실(3층)
- 참석 : 15명
 - 시의원 (3명) : 정준이 · 장승업 · 이충열 의원
 - 민간인 (5명) : 충남 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차수철 외
 - 공무원 (7명) : 시 환경정책과장, 시 교육청 창의진로과 장학관, 전문위원실
- 안 건 : 환경포럼 개최 위한 2개 기관의 환경정책 발표 및 토론

< 진행 계획 >

시 간	소요	회 의 내 용	비 고
16:00 ~ 16:05	5'	· 개회 선언	
16:05 ~ 16:10	5'	· 상호 인사	
16:10 ~ 16:15	5'	· 인사 말씀	연구모임 대표의원
16:15 ~ 16:30	15'	· 세종시 학교 환경교육 자원실태 현황 및 방향성 발표	시 교육청 장학관
16:30 ~ 16:50	20'	· 세종시 사회 환경 교육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 현황 발표	시 환경정책과장
16:50 ~ 17:25	35'	· 발표내용 토론	
17:25 ~ 17:30	5'	· 폐회 (기념촬영)	

□ 주요 논의내용

- (시 교육청 중점 추진방향)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환경 동아리 운영, 선생·학생 워크숍 개최,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확산 등
- (시 중점 추진방향) 환경 교육 계획수립, 녹색 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센터 설립 구상 등
- (정준이 의원) 세종시는 새로 만들어 지는 환경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도시인 만큼,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앞장서 견인차 역할이 매우 절실
- (이충열 의원)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후 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기 교육, 자료 연구·검토 후 대안 제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전 대처 중요
- (장승업 의원) 전 국민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계몽분위기 확산 전개
- (임비호 간사) 교육청에서 차별화된 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학교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은 매우 바람직

□ 제5차 연구모임 (환경포럼/9.24) 준비계획

- 2개 기관이 발표한 내용과 토론결과를 주제발표 자료에 반영토록 조치
- 행복청, LH, 환경 전문기관 등 다수 관련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준이 대표위원이 제4차 환경교육 연구모임 회의(7.23)를 주재하는 모습



▲ 세종시교육청 창의진로과 장인자 장학관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세종시청 전석천 환경정책과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대전투데이

2015년 07월 27일 (월)
02면 정치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제4차 회의 가져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 수립하기 위한 현황 발표와 토론의 장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 세종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세종시 학교와 사회의 환경교육 지원실태 현황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세종시교육청 창의진로과 장인자 장학관이 '세종시 학교 환경교육 지원실태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전석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이 '세종시 사회 환경 교육 현황 파악 및 정책수립 현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참석 위원들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충열 의원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며, 자료를 연구·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사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업 의원은 "전 국민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계몽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준이 대표의원은 "9월 17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릴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는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여 평소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연말에는 그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세종=이정복기자

제5차

세종시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포럼 개최

□ 개 요

- 일 시 : 2015.9.24.(목) 14:00~16:00
- 장 소 : 세종시청 대회의실(5층 세종실)
- 참석 : 100여명
 - 발제자 : 공주대 이재영 교수(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좌 장 : 정준이 의원(세종시의회 시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 대표)
 - 토론자 : 6명
- * 행정기관(3): 세종시 이창주 시민안전국장, 세종시교육청 김성미 창의진로과 과장, 행복도시건설청 이능호 녹색에너지환경과 과장
- * 환경단체(3): 한국숲유치원협회 이경순 세종지회장,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권규 회장,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차수철 운영위원장
- 기 타 : 시의원, 공무원, 관련단체, 시민 등
- 주 제 :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진행 계획 >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및 접수	
14:00~14:30	30'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사회자 대표의원 등
14:30~15:00	30'	주제 발표	이재영 교수
15:00~15:50	50'	토 론 질의·응답	방청석
15:50~16:00	10'	폐회 및 다과	

□ 주요 논의내용

- (공주대학교 이재영교수) 현재 갖추어진 세종시만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환경교육을 시민과 기관이 공동추진 제시

- (시 중점 추진방향)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시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내년도에는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해 줄 것을 강조
- (시 교육청 중점 추진방향) 지역 환경자원을 활용한 실천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하여 미래지향적 환경보호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신생도시의 체험가능한 시설과 공간 확충을 요청
- (행복청 중점 추진방향)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규제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 등 범 세계적인 노력으로 친환경교통망과 첨단환경 기초시설 구축 등으로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을 운영하여 환상형 도시중심의 친환경행복도시 실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 협조
- (한국숲유치원협회) 미래세대를 짊어질 생활중심 유아위주 교육을 급격히 팽창한 젊은 도시 위상에 맞게 “세종시 유아 숲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정 제언 언급
- (세종지속가능협의회) 법적근거를 토대로 환경교육 센터 설립에 근간을 이루는 센터의 정의와 기능에 대한 설명과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재차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
- (충남환경네트워크) 지속가능한 세계적 환경수도를 자처하고 있는 세종시가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시민의 환경의식이 연계되어 지역사회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세대와 지역, 계층과 이념의 갈등까지도 해결하는 새로운 기회의 시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요구

- (정준이 의원) 평소 세종시 출범이후 개발과 환경교육이 공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서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 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한 계기에 감사함을 표명하면서, 올 연말까지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세종시에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의 길잡이 역할 선두

□ 제6차 연구 모임 (11.3) 준비계획

-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 검토 및 연구회 보고서 준비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 대표 정준이 의원이 포럼을 주재하는 모습



▲ 참석자들이 환경포럼 토론자들의 열띤 발표 내용을 경청하는 모습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 정준이 대표의원 포럼 개최하는 모습

【개최전 보도자료】 2015년 9월 22일(화)

굿모닝충청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24일 포럼 개최

오후 2시 세종시청사에서...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신상두 기자 | sdshin@goodmorningcc.com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세종시의원들이 주축이 돼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 24일 오후 2시, 세종시청(보람동)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재영 교수(공주대 환경교육과)의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세종시·교육청·행복청 관계자, 생태숲유치원협회·세종지회·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소속 환경전문가 등 6명이 열린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재영 교수는 "이번 포럼이 세종시만을 위한 유일한 환경교육 자원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포럼과 관련, 정준이 의원은 "세종시 출범이후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환경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 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개최후 보도】 2015년 9월 25일(금)

NEWSsis. () 2월 8일
2011.09.1

2015년 09월 24일 (목)

종합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개최



【세종=뉴스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4일 시청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이준희 세종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전문가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15.09.24.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스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4일 시청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을 열었다.

세종시의회 시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대표 정준이 의원) 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이준희 세종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 전문가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명 교수는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재 갖추어진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학습도시 건설에 시민과 기관이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주 세종시 시민안전국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사회 전체적으로 극복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시행을 위해 '가칭'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내년도에는 세종시 환경교육 종합계획(5개년 법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다소 늦었지만 친환경적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미 세종시 교육청 창의진로과장은 "학교 환경교육 과정을 다수 발굴해 실천하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선도 교사 양성 추진과 환경자원을 통한 실천중심의 환경프로그램 활동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하는 미래 지향적 환경보호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시민의 환경 감수성과 환경 소양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능호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세계 최고의 친환경 녹색 에너지 도시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 규제에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 등 범 세계적 노력으로 친환경 교통망과 첨단환경 기초시설 구축 등으로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을 운영해 환경형 도시중심의 친환경행복도시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순 한국숲유치원협회 세종지회장은 "최근 UN이 선포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선포로 현대 유아교육의 대안교육으로 자연주의 유아교육, 그 중에서도 숲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숲 체험활동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어린 아이들을 자연(숲)에 데리고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어른 스스로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권규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법적근거를 토대로 환경교육 센터 설립에 근간을 이루는 센터의 정의와 기능에 대한 설명과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재차 세종시환경교육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세계적 환경수도를 자처하고 있는 세종시가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전체의 자연자원과 시민의 환경의식이 연계돼 지역사회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세대와 지역, 계층과 이념의 갈등까지도 해결하는 핵심요소"라며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정준이 의원은 "평소 세종시 출범이후 개발과 환경교육이 공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 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올 연말까지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세종시에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의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5700@newsis.com

충남일보

2015년 09월 25일

지역 04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개최

환경진흥조례 제정·환경교육 센터 건립 방안 제시

세종시의회 시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 주관으로 24일 오후 2시 행복도시 보람동에 위치한 세종시 청사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이준희 세종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전문가의 열띤 토론과 관심있는 시민 100여 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는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재 갖추어진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학습도시 건설에 시민과 기관이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창주 세종시 시민안전국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사회 전체적으로 극복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시행을 위해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내년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다소 늦었지만 친환경적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역할

을 인식하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창의진로과장은 "학교 환경교육 과정을 다수 발굴해 실천하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선도 교사 양성 추진과 환경자원을 통한 실천중심의 환경프로그램 활동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함께 하는 미래 지향적 환경보호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시민의 환경 감수성과 환경 소양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정준이 의원은 "평소 세종시 출범이후 개발과 환경교육이 공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서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 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올 연말까지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 활동결과와 보고서를 발간해 세종시에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의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권오주 기자 koun1132@naver.com

144 X 125

동양일보

2015년 09월 24일 (목)

종합 05면

세종시의회 오늘 환경포럼

환경 교육 연구 모임 주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 주관하는 환경 포럼이 24일 오후 2~4시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가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행복청이

참여하고 생태 숲 유치원협의회,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등 3개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환경전문가 패널의 토론에 이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이재영 교수는 이번 포럼이 세종시 만을 위한 유일한 환경교육 자원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규모>

99 X 60 mm

충청신문

2015년 09월 25일 (금)

정치 05면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성료'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대표 정준이 의원) 주관으로 24일 오후 2시 행복도시 보람동에 위치한 세종시 청사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을 마쳤다.

이날 포럼에는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이준희 세종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전문가의 열띤 토론과 관심있는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공주대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는 "현재 갖추어진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학습도시 건설에 시민과 기관이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창주 세종시 시민안전국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사회 전체적으로 극복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시행을 위해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내년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종합 5개년 법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완영 기자 waneyoung@dailycc.net

54 X 133 mm

중도일보

2015년 10월 26일 (월)
지역 05면

세종시의회 환경교육연구모임 빛본다

연말 관련 조례제정 등 결실
정준이 대표 “명품시 도약”올해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 정준이 의원) 성과가 연말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25일 세종시의회의(의장 임상전)에 따
르면 연구모임은 지난 2월23일 발족과
함께 그동안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
포럼 등의 왕성한 활동을 거쳐 성과창
출 준비를 갖췄다.정준이 대표를 비롯해, 임비호(푸른
세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간사와
이종렬(행정복지위원회)·장승업(부
의장) 의원,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
워크 운영위원장, 박경자 YMCA부이
사장, 윤석기 시 녹색환경과장 등 모두
7명 위원이 내설있는 모임을 이끌고
있다.모임 발족 후 세종시 전반의 환경교
육 자원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 24일 보람동 본청서 열린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세종시의회 제공

전국 우수 환경교육센터를 찾아 시에
접목 가능한 요소를 벤치마킹했다.지난 3월 노원 에코센터와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지난 4월 유엔(UN) 지
속가능발전통영센터, 통영RCE생태
공원 방문은 위원 전반의 인식 개선과
향후 발전방향 도출에 큰 보탬을 줬다.이 과정에서 대표인 정준이 의원은
환경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을 역설했고,위원들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 ▲환경교육 시범
학교 운영 확산 ▲시로 이전한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연계 협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인식했다.환경교육 방향성 확립의 전환점은
지난달 24일 보람동 본청서 열린 환경
교육 활성화 포럼을 통해 마련됐다.시와 시교육청, 행복도시건설청, 생
태숲유치원협회세종지회, 세종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충남환경교육네트
워크 등이 참여, 민선2기 환경 패러다
임 변화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연구모임은 오는 29일 오후2시 조치
원읍 시의회에서 제3차 정기 모임 및
유관 단체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12
일 그동안 활동을 집약한 보고서 발간
에 나선다. 결국 이는 연말까지 환경교
육 진흥조례 제정에 이어, 내년 환경교
육 종합계획(5개년 법정계획) 수립이
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세종시 환경교육센터 설립 시기를
앞당기고, 한성형 도시 중심의 친환경
행복도시 실현과 학교 현장 환경교육
보급 및 자연주의 유아교육 인프라 확
대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준이 대표는 “시 출범 후 개발과
환경교육 가치가 공존하지 못한 측면
이 많다. 조례 제정과 센터 건립 등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교육의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2030년 명실상부한 명품 세종시 도약
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
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제6차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안 의견 청취

□ 개 요

- 일 시 : 2015.11.3.(화) 10:30~12:00
- 장 소 : 시의회 소회의실(3층)
- 참석자 : 15명
 - 시의원(3명) : 정준이 대표의원, 장승업 의원, 이충열 의원
 - 민간인(3명) :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외 2명
 - 공무원(9명) : 행복청 1명,시 환경정책과2명 시 교육청 창의진로과2명 전문위원실4명
- 안 건
 - 세종시 및 학교 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토론
 - 세종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방향성 모색 협의 등

< 진행 계획 >

시 간	행 사 명	내 용	비 고
10:30 ~ 10:35	개회선언 및 인사말		정준이 의 원
10:35 ~ 10:45	참석자 상호인사		사 회
10:45 ~ 11:00	의 제 1	1. 환경교육 조례안 초안 2. 학교환경교육조례안 초안	정준이 의 원
11:00 ~ 11:15	의 제 2	1. 세종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현황과 방향성 발표	환 경 정책과
11:15 ~ 11:55	참석자 토 론		정준이 의 원
11:55 ~ 12:00	폐회 및 기념촬영		

□ 주요 쟁점내용

【시 중점 의견】

- 조례안 제3조(정의) 제3조제4항 “체험환경교육”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 요구⇒수렴
- 조례안 제13조(백서 및 우수사례) 추후 환경교육센터 추진할 사항 삭제 요구⇒수렴

【교육청 중점 의견】

-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은 계속 확장되는 세종시 교육청 여건이 안정화 된 후 제정토록 요구⇒비수렴
 - 환경교육진흥법의 틀에서 시와 교육청이 분리된 법규를 가졌을 경우에 업무 추진시 기관간 이질감 우려 통합조례 요구⇒비수렴
- (이충열 위원) 시와 교육청의 조례안 동시 발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통합조례 제정 운영할 시 두 기관의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될 경우 큰 파장 우려 신중한 검토 필요
- (차수철 위원) 제6조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등)에서 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전반에 대한 사항을 대행함에 회의적이며, 세종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함.
- (임비호 간사) **학교**환경교육조례안 제정은 실체적인 환경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중심의 교육청이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근거를 두는 핵심 사항으로 제정 필요
- (정준이 대표 의원) 그동안 함께 추진해온 위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또한 연내 발간될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 결산 활동보고서가 세종시민 스스로에게 환경보전을 실천하게 하는 참고서 같은 자료가 되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세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향후 계획

- 제34회 2차 정례회시 관련 조례안 2건 의원발의 상정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 결산 활동보고서 발간



▲ 정준이 대표위원이 제6차 환경교육 연구모임 회의를 주재하는모습



▲ 임비호 간사와 교육청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과장과의 의견 교환하는 모습

중도일보

2015년 11월 05일 (목)
지역 05면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은 3일 조치원읍 시의회에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잔결음

6차 회의- 조례 제정 등 논의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 연발 성과 향상을 위한 잔결음을 내닫고 있다.

연구모임은 3일 조치원읍 시의회에서 이를 위한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제6차 회의록 진행했다.

자주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모임을 통해 조례안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나아가 환경교육 센터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한 정도 큰 성과다. 지역 환경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바호 부원세종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도 "연발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이 빨리지고 있다"며 "교육청 등 제 단체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자"고 역설했다.

정준이 대표는 "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서가 연발 발간된다"며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 실천에 나서는 참고서 같은 자료로 남아, 명품 세종시 건설에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이희배 기자

119 X 148 mm

大田日報

2015년 11월 05일 (목)
인물 20면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 지역발전 초석 다져

신·구도심 상생발전방안 등 지속적 과제들 논의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사진>

세종시의회 균형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윤형권)은 4일 세종시 균형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발표 및 토론을 위한 제5차 연구모임을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박사가 연구발표한 '세종시와 제주도의 비교를 통한 세종시 재정발전 모색'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기획조정단 박종광 박사가 연구발표한 '세종시 신·구도심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연구모임 대표인 윤형권 의원은 "세종시 균형발전 문제는 세종시의 개발, 성장과 함께, 신·구도심간 상생발전을 위한 중요하고 지속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은 지난 3일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교환됐다.

정준이 대표의원은 "그동안 활동결과를 잘 정리해 연말까지 발간될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가 세종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게 하는 참고자료로 남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명품 세종시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대욱 기자

160 X 96 mm

충청투데이

2015년 11월 05일 (목)

지역 12면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제6차 회의를 가졌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6차 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 4일 세종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됐다.

세종=황근하 기자 gunst19@ccnnews.co.kr

81 X 103 mm

동양일보

2015년 11월 05일 (목)

정치 05면

환경교육 · 균형발전 연구모임 개최

세종시의회 토론회 질의 벌여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 지난 3일 세종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또 균형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윤형권)은 4일 오전 세종시 균형발전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발표 및 토론회를 위한 5차 연구모임을 개최했다. 환경교육 연구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환경교육 진흥 조

례안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4일 열린 균형발전 연구모임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박사가 연구 발표한 세종시와 제주도의 비교를 통한 세종시 재정발전 모색 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기획조정단 박종광 박사가 연구 발표한 세종시 신 구 도 심상생발전방안 에 대해 토 론 질 의를 가졌다.

환경교육 연구 모임 정준이 대표의원은 그동안 활동결과를 잘 정리해 연말까지 발간될 세종시의

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가 세종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게 하는 참고자료로 남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명품 세종시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균형발전 연구모임은 윤형권 대표를 비롯해 김원식, 김복렬, 안찬영 의원 등 7명이 회원으로 참여, 그동안 3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모임은 향후 추진과제가 확정되면 관계자들과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세종시에 적합한 균형발전 방안을 최종 확정해 12월 보고서 발간 및 집행부 권고 등을 할 계획이다. <세종 임규모>

143 X 82 mm



환경교육 연구모임 제6차 회의

세종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종합계획 방향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은 3일 세종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됐다.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차수철 운영위원장은 "이번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한 것은 큰 성과라며 세종시 환경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비호 푸른세종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환경교육 조례안'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이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자"고 역설했다.

정준이 대표의원은 "그동안 활동결과를 잘 정리해 연말까지 발간될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가 세종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게 하는 참고자료로 남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명품 세종시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8 X 175 mm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제정 회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 지난 3일 세종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됐다.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차수철 운영위원장은 "이번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한 것은 큰 성과라며 세종시 환경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정준이 대표의원은 "그동안 활동결과를 잘 정리해 연말까지 발간될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활동 결과보고서가 세종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게 하는 참고자료로 남아 명품 세종시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정정희 기자
63 X 162 mm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환경교육 활성화'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 지난 3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됐다.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차수철 운영위원장은 "이번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종합

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한 것은 큰 성과라며 세종시 환경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비호 푸른세종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환경교육 조례안'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이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자"고 역설했다.

세종/ 유왕준기자
<yjou@jeonmae.co.kr>

177 X 45 mm

굿모닝충청

2015년 11월 12일 (목)

대전/충남 11면

“세종을 ‘환경교육 필요없는’ 쾌적한 도시로...”

세종시의회 환경교육연구모임 1년 활동 마무리

“연내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제정,
환경교육계획 수립 방향성 제시가 최대 성과”

“세종시는 대대적인 신도시 건설과 일부 지역의 난개발 때문에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환경’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활동이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됐으면 합니다”(정준이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환경교육연구모임(대표 정준이 의원·이하 환경연구모임)이 최근 10개월여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환경연구모임은 현재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안’과 ‘세종 교육청 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을 제정해 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연구모임이 금년에 펼쳐온 활동과 활약상을 살펴봤다.

급속한 개발에 ‘환경 위기’느껴 연구모임 결성

환경연구모임은 금년초 **세종시의회**의 정준이 의원을 대표로 이충렬·장승업 의원이 참여해 결성됐다. 여기에 민간분야에서 임비호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과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경자 YMCA부이사장 등 7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결성당시 회원들은 세종시가 급격하게 개발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환경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인식이 약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

즉,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난개발이 이뤄지는 주변지역의 상황을 보면서 환경교육 활성화와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

환경연구모임은 세종시의 환경교육 활성화 자원 실태 조사와 전략수립,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연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다.

이들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우수 환경교육센터를 방문, 세종시에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정준이 의원은 환경교육센터가 세종시에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시민주도로 운영되는 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가 우리시의 환경교육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됐어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이 절실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환경문제라는 점도요...”

UN지속가능발전 교육 통영센터 방문-전략수립 토대

회원들은 4월에 환경교육전략수립을 위해 유엔지속가능 발전교육 통영센터를 찾았다.

이들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 자연생태공원 설립 과정, 교육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준이 의원

방문자들은 이곳을 둘러보며 자원 절약과 자원화의 소중함 등을 새로 깨닫는 기회를 갖고, 자원재활용을 시민생활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경진흥조례 제정에 불붙인 ‘환경교육 포럼’

세종시 환경교육 관련 조례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불을 붙인’ 행사도 열렸다. 환경연구모임 주관으로 지난 9월 개최된 ‘환경교육 활성화 포럼’이 그것.

이 자리에서 이재영 공주대 교수는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 학습도시 건설을 제안했다.

세종시 집행부 관계자는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내년에 새롭게 수립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와 조례도 금년내 만들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환경교육 과정을 다수 발굴하고, 환경교육 선도교사 양성추진과 실천중심의 환경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권규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의 상임회장 타 지자체에 사례를 들어가며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차수철 회원은 지속가능한 세계적 환경수도를 자처하는 세종시가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시민의 환경의식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근(11월 3일)에는 환경연구모임의 마지막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충열 의원은 “시와 교육청의 환경교육 관련 조례안 동시 발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며 조례안 제정에 만족감을 보였다.

임비호 회원은 “실천중심의 환경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환경교육 조례안 제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준이 대표의원 맺음말을 통해 “연내 발간될 **세종시의회** 환경교육연구모임 결산 활동보고서가 세종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게 하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교육은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과 교육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으로 만들어서까지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교육과 법이 아닌,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환경가꾸기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신상두 기자 sdshin@goodmorningcc.com

355 X 319 mm

IV. 운영 성과

- 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
-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
- 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Ⅳ 운영 성과

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의안 번호	1088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5.11.26. 본회의 원안가결】
(시행 예정일 : 2015.12.20.)

1. 제정이유

「환경교육진흥법」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환경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함(제2조)
- 나.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라.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마.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제9조)
- 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제11조)
- 사. 재정의 지원, 환경교육 정보망 구축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시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7.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자 환경교육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학교,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환경관련 시책·교육 추진에 따른 사업
2.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
3. 어린이 및 청소년·시민 환경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업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전 교육·홍보 및 실천에 관한 사업
5. 생태탐방 체험시설 활성화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6.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7. 환경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8. 기후변화 적응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제13조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의안 번호	1092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5.11.26. 본회의 원안가결】
(시행 예정일 : 2015.12.20.)

1. 제안이유

- 「환경교육진흥법」 및 “세종시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다.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제6조)
- 라. 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사항을 정함(제7조)

3.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등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학교환경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장 및 학교환경교육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원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그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7조(수당지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목 차

I. 환경교육 개요

II.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 및 문제점

- ① 환경교육 현황
- ② 문제점

III.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기반

- 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지원조례 제정
- ②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 ③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 ④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 ⑤ 다양한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 ⑥ 기후·환경네트워크를 통한 기후변화 교육 확대
- ⑦ 공무원 및 기업체 종사자 환경교육 강화
- ⑧ 학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I 환경교육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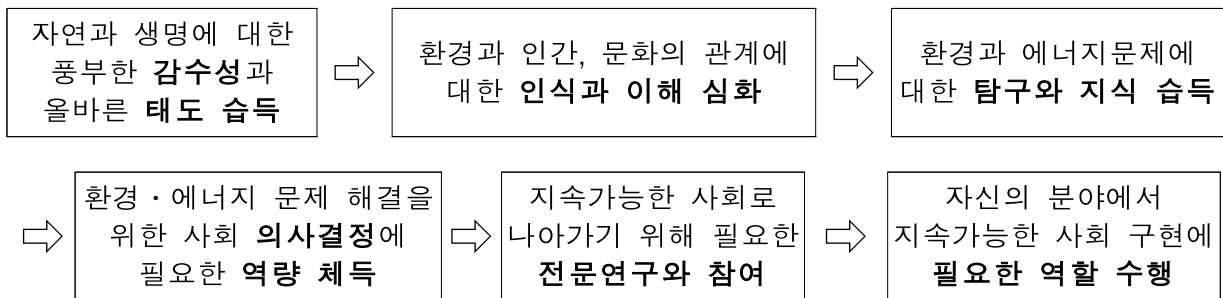
□ 환경교육 개념

-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 교육 실시장소 및 대상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으로 구분

□ 환경교육 목표

- 지속가능한 사회에 적합한 행동하는 시민 육성
- 친환경적 사회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

□ 환경교육 과정



□ 환경교육 체계

주요 방향	주 체	방 법	대 상
학교 환경교육	학 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 자율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유아, 초중등 및 대학생 교사
사회 환경교육	국가(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주체별 전문과정, 체험학습 등 자율적 프로그램 개설 운영	환경전문인 학생, 일반시민 등

Ⅱ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 및 문제점

1 환경교육 현황

<p>2014 주요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해설사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 14회 546명, 심화교육 13회 286명 • 강길산길 생태탐방 8회 300명, 우수경관 생태탐방 4회 151명 ■ 기후변화교육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24회 784명, 환경학교 1회 23명 • 온실가스 저감활동 운동가인 그린리더 양성 : 초급 34명, 중급 34명 ■ 다양한 시민환경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 32회 785명 • 기후변화대응 시민한마당 2,000명, 환경보전실천보고대회 800명 • 하천유해식물 제거사업 3회 160명 •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연료화시설 등) 개방 및 견학 : 연중 1,579명
<p>2015 상반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제실천사업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해설사 대학 양성 과정(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시민대상 자연해설사 양성, 세종시 주요 생물자원과 서식처 탐방 - 참석 : 15회 43명 수료 • 토요체험학교-지구와 로컬푸드이야기(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로컬푸드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체험, 슬로푸드 체험요리 등 - 참석 : 7회 33명 • 하천유해식물 제거사업(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하천 생태계 교란식물(가시박 등) 강의 및 제거 실시 - 참석 : 5회 150명 ■ 시민참여 환경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대청결을 통한 시민환경교육(3월,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국토대청결 운동 실시로 시민교육·홍보 및 환경보전의식 고취 - 대상 : 학생, 단체, 공무원 등 1,100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교육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비산먼지(소음·진동)사업장 관리요령 및 저감대책 등 - 대상 : 기업체 직원, 공무원 등 120명

2015
하반기
계획

■ 지방의제실천사업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활동

-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7월 ~ 11월)
 - 내용 : 자연환경 체험, 생활 속 녹색 실천 등 맞춤형 방문 및 현장 교육
 - 대상 : 찾아가는 환경교육 신청기관, 단체 등

■ 기후.환경네트워크를 통한 기후교육 추진

- 찾아가는 기후학교 실시(9월 ~ 11월)
 - 내용 :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방법 등
 - 대상 : 찾아가는 기후교육 신청기관, 학교 등
- 그린리더 양성교육(8월 ~ 10월)
 - 내용 : 기후변화와 에너지, 탄소포인트의 이해, 실천활동 등
 - 대상 : 학생, 시민 및 기업체 등

■ 기업의 환경교육 참여 활성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특별교육 실시(10월 중)
 - 내용 :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및 오염사고 대처방안 등
 - 대상 : 배출업소 100개소(관련책임자)

2 문제점

- 환경교육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세종시 차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 미흡
 - 세종시 환경교육조례 : 미제정
 - 세종시 환경교육계획 : 미수립
-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연계성 부족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특성에 따른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환경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연계 프로그램 부족
- 자연체험 활동 위주의 단편적·일률적인 교육
 - 주로 소규모·생태체험 위주로 운영되며 강사진, 시설 등 체계적 지원이 부족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대국민 접근성 부족
 - 환경교육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들이 지역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안심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부재

Ⅲ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 기반

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 현황 및 필요성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되어 시행('08.9.22) 되었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민간활동 지원 명시(법 제4조)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조례」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원론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독립된 조례 마련이 시급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조례」 제29조 : 환경교육 및 홍보

□ 추진방안

- 조례 제정 목적 : 환경교육 법적 기반 마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 조례 주요 내용
 - 환경교육 목적, 정의, 책무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 재정지원 등

□ 추진 일정

- 연내 제정('15.10월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

사업명	추진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 현황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환경교육을 통해 녹색시민을 육성하여 녹색성장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
-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008.9월 시행)
-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

□ 추진방안

- 작성방향
 - 환경교육 5개년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 도출
 - 업무협의를 통해 세종시 교육청과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계획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환경교육 목표 및 방향 제시
 - 환경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
 - 환경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환경교육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방안

□ 추진 일정

- 제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16~'20) 내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

사업명	추진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환경 교육계획 수립						30	세종특별자치시

3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환경교육 장기비전을 실현하고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 전반을 총괄 지원하는 체제 구축 필요
- 환경교육공간, 정보 제공, 전문가 양성, 연구개발, 네트워킹 등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위해 필요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추진방안

- 세종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통한 교육 거점 확보
 -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육성
 - 신청기관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등을 검토 후 지정
- 환경교육센터 주요기능 : 시 환경교육 총괄
 - 교육·양성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도자·전문인력 양성 등
 - 연구·개발 :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 연구개발, 보급 등
 - 네트워크 :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국내외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등

□ 추진 일정

- 센터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전수조사(지정요건 부합여부 검토)
-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사업명	추진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기관
	2015	2016	2017	2018	2019		
환경교육센터 전수조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사전	준비			300	세종특별자치시

4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추진배경

-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에 필요한 친환경 생활상 (Eco-lifestyle)을 제시하고,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매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의 구매기반은 미흡
 - 민간에서 녹색제품 소비 확산을 주도하는 센터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

□ 그동안 추진상황

- 시민단체 의견수렴(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등 5개 단체, '14.7월)
 - 수렴 결과 친환경적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의견
- 자료수집관련 선진지 견학(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15.2월)

□ 추진일정

- '16년 본예산 확보 확보('15.09, 연 200백만원)
- 센터 설치대상지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16.03)
- 공개절차(공모)를 통한 위탁기관 선정 지정('16.06)

사업명	추진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전 준비				600	세종특별자치 시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5 다양한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국·시비 지원사업)

구분		계	2014	2015.6.
지원실적	단체수	4	2	2
	지원비	31,429천 원	14,286천 원	17,143천 원
교육실적	횟수	37회	22회	15회
	인원	1,491명	846명	645명

- 다양한 주제를 연계한 통합형 환경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에너지,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보전, 생태 등
 - 최근에는 에너지 적정기술, 실내공기질 등의 시의성 있는 내용 요구

□ 추진방안

- 기존 환경교양, 체험교육은 지속하면서 시대흐름에 맞게 보완 발전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등 강화
 -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확대
- 시 산하 환경기초시설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 시 산하 환경기초시설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 환경교육 한마당, 토요체험학교 등 지방의제실천사업과 연계 추진

□ 추진일정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15~'16)
- 단체 및 기관의 환경교육 사업 지원(우수사례 발굴, 보급) 등('15~'16)

6 기후·환경네트워크를 통한 기후변화 교육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민·관 파트너십 형의 “저탄소사회 국민실천 네트워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녹색실천 등 친환경 교육으로 실천하는 녹색시민 양성
- 주민참여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유도

❖ 「세종 기후·환경 네트워크」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에너지 절약 운동 등)의 확산·보급으로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구성
- 사회 각 분야의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형의 “저탄소사회 국민실천 네트워크”

※ 2008년 10월 전국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구성·운영 중이며, 우리시는 2012년 11월 구성, 2013년부터 실천운동 전개

□ 추진방안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과 연계한 기후변화대응 교육 강화
 - 그린리더 교육수료자의 기후학교 강사활용 등 녹색생활 운동 확산
- ※ 그린리더 등 교육강사 DB구축, 인적자원으로 활용
- 교육, 실천사업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 온실가스-가정진단,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

□ 추진일정

-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15~'16)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홍보 프로그램 운영(체험교육 등)('15~'16)

7] 공무원 및 기업체 종사자 환경교육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환경교육(환경, 수질, 생태, 에너지 분야 등)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의식 부족
 - 환경관련 공무원의 경우에도 환경실무, 기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룸
-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고갈 등의 환경문제 인식으로 기업의 책임 의식 고취 및 친환경경영 유도

□ 추진방안

- 공무원 환경교육 강화
 - 공무원 환경교육 연수 등 참여를 적극 권장, 환경강의 지원
 - 각종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교육 확대
 - 공무원 체험환경교육 기회 제공 : 환경우수도시 견학 등
- 기업의 환경교육 참여 활성화
 - 기업체에 환경체험교육이나 친환경 경영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 관련 강의 등 환경교육 확대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대응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공무원 환경교육 강화('16~'17)
- 기업의 환경교육 참여 활성화('15~'17)

8 학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은 각각 자체로서 완결성 부족
- 학교환경교육 / 사회환경교육 비교

구 분	학교 환경 교육	사회 환경 교육
장 점	지속성, 체계성	다양성, 현장성, 쟁점중심
단 점	다양성과 현장성 부족	지속성과 체계성 부족
대 상	학 생	시민 전체
교육내용	학교 환경 교육과정의 내용	개인, 집단의 목적에 따라 유동적
교육방법	조사, 사례연구, 탐구학습, 강의 토론, 실험, 관찰, 역할놀이 등	환경체험교육, 강의, 토론, 시청각교육등
교육기간	대체로 장기적(학기, 학년)	비교적 단기간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 환경교육과 연계 필요
 -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기회 제공, 사회 환경교육 단체의 역량 강화

□ 학교 및 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방법
 - 교육청(학교)과 단체의 파트너십 형성후 상호 역할분담
- 추진내용
 - 학교 : 교사, 학생 등 학습참여, 시간 및 공간지원 등
 - 단체 : 체험학습프로그램 등 프로젝트 계획수립 및 실행
- 제정지원 : 필요시 시에서 단체에 사업비 지원

□ 추진일정

- 2016 공모사업을 통한 시범운영 후 확대 실시

「제5차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 ◇ 일 시 : 2015년 9월 24일(목) 14시
- ◇ 장 소 : 세종시청 대회의실(5층, 세종실)
- ◇ 주 관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연구회
- ◇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후 원 :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행복도시 건설청

◇ 참 여 단 체 :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녹색환경지킴이, 세종 YMCA, 세종YWCA, 세종참여연대, 세종교육네트워크, 한국숲유치원 협회 세종지회, 세종시자연보호협의회, 세종자연환경동물보호협의회, 세종생태·숲해설가협회, 세종자연환경해설가 모임, 세종그린리더 협의회, 자연환경국민운동 중부분부

목 차



인사말 및 축사



개 요



발제 및 토론자료

1. 발 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이재영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2. 토 론
 - ① 세종시 전석천 환경정책과 과장
 - 세종시환경교육 기반 현황 및 비전
 - ② 세종시 교육청 김성미 창의진과 과장
 - 세종시 학교 환경교육 현황 및 비전
 - ③ 행복도시건설청녹색에너지환경과 이능호과장
 - 행복도시 내 환경교육 기반조성 현황 및 비전
 - ④ 한국숲유치원세종지회 이경순 지회장
 - 세종 유아시설 환경교육 현황 및 전망
 - 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권규 상임회장
 - 세종 환경교육 활성화 제언
 - ⑥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차수철 운영위원장
 - 세종 환경교육 기반구축 및 제도화 제언

인사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20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저는 세종시의회 시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준이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행복도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公私多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을 빛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춘희 세종시장님,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님,
이해찬 국회의원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맡아 주실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교수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참여 단체 회원님
등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세계 제일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누구나
가장 살고 싶은 행복도시’입니다. 저는 행복도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본 의원이 대표로
장승업 부의장님, 이충열 위원장님과 사회 각 계층의 환경전문가 7명이 모임을 공식적으로 발족하여
그간 경남 통영과 천안 광덕에 위치한 선진지 환경교육 시설을 방문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항이 구체화 되면 이를 정리한 후 관련 기관
과의 협의·보완과정을 거쳐 오는 연말까지 본 연구모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세종시민
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실천이 가능한 전국에서 가장 수범적인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시민이라면 누구나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방향도 제시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포럼이 우리가 살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향하는 환경정책의 선도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 차원의 의지를 결집하는 뜻 깊은 계기가 마련될 것을 희망하면서 포럼을 통한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별도 생업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만사 뒤로 미루고 장기간 동안 포럼준비와 진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비호 간사님과 모임 발족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열정을 갖고 물심 양면으로 행정·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천의교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치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환경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천고마비(天高馬肥), 등화가친(燈火可親)의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사랑과 평화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정준이 의원

시장 축사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포럼을 개최하여 주신 정준이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오늘날의 전지구적인 고민은 바로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통해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보존과 개발간의 균형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현재 세대의 개발위주의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의 미덕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건설 중인 세종시에서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찾아가는 환경교육,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린리더 양성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추진하여 왔으며, ‘16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환경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의 환경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환경친화적인 삶을 위한 환경교육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평소 생각하고 계신 고견을 기탄없이 토론하심으로써, 오늘 토론의 장이 우리지역 환경교육정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 오신 걸 환영하며,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정준이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미래 세대에 더 큰 자산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24.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 춘 희

의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장 임상전입니다.

오늘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0만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은 단일국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여러분야에 걸쳐 국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환경은 국가의 운명과 장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보전을 하면 경제가 후퇴한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지구온난화를 방치하면 세계는 경제대공황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2007년 영국에서 발간된 스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며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라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이 땅은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빌려온 것이라 잘 보존해야 한다』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로 인류문명이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환경과 에너지를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에서 세종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지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 각별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정’에 열정을 바치시는 정준이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정성과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 상 전

교육감 축사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들판에 코스모스가 피고 곡식이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입니다.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 주관으로 이루어진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언해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과 교육청, 유관기관에서 많은 노력과
활동을 펼쳐왔지만 앞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 정책과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세종시 환경교육조례 제정을 위한 오늘과 같은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강이 흐르고 원수산, 괴화산 등 주변에 입지가 좋은 환경에 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의 동전처럼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쾌적한
행복도시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중학교 학생들의 KEI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오늘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통하여 우리시가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 정준이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 교 진



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포럼일정

1. 사 업 목 적

- 지속가능한 세종시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자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세종시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세종환경
교육 종합계획 등), 세종시 환경 교육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하여 기반
구축, 법적 제도적(지원 조례 제정등) 방향성을 모색한다.

2. 사 업 개 요

- 주 제 :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일 시 : 2015년 9월 24일(목) 14시~ 16시
- 장 소 :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세종실)
-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 주 관 : 세종시 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
- 후 원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복도시 건설청
- 참여단체 :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 YMCA, 세종YWCA, 세종참여연대,
세종교육네트워크, 한국숲유치원협회 세종지회, 세종시 자연보호
협의회, 세종자연환경동물보호협의회, 세종녹색환경 지킴이, 세종생태·
숲해설가협회, 세종자연환경해설가모임, 세종그린리더협의회,
자연환경국민운동본부

○ 발표자 및 패널

▶ 발 제(1명) : 이 재 영(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 토 론(6~7명)

- 좌 장 : 정 준이(세종시 의회)

- 토론자 :

① 세종시 환경정책과 전석천 과장

- 세종시 환경교육 기반 현황 및 비전

② 세종시교육청 김성미 창의진로과 과장

- 세종시 학교 환경교육 현황 및 비전

③ 행복도시 건설청 이능호 녹색에너지환경과장

- 행복도시 내 환경교육 기반 조성 현황 및 비전)

④ 한국 숲유치원협회 이경순 세종지회장

- 세종 유아시설 환경교육 현황 및 전망

⑤ 지속가능발전세종시협의회 최권규 회장

- 세종 환경교육 센타 건립 제언

⑥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차수철 운영위원장

- 세종 환경교육 기반구축 및 제도화를 위한 제언

○ 내 용

- 세종시 학교 환경 교육 자원실태 현황 및 방향성 모색

- 세종시 사회 환경 교육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현황

(조례 제정 준비, 환경교육 종합계획, 환경교육센타 설립 등)

3. 포럼 일정

일 정	행 사 내 용	비 고
접 수 (13:0~14:00)	등록 및 접수	
개회식 (14:00~14:30)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개회사 및 축사	
발 제 (14:30~15:00)	주 제 :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	
토 론 (15:00~15:50)	좌 장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연구모임 정준이 대표의원 토 론: ① 세종시 환경정책과 전석천 과장 ② 세종시 교육청 창의진로과 김성미 과장 ③ 행복도시건설청 녹색에너지환경과 이능호 과장 ④ 한국 숲 유치원 세종지회 이경순 지회장 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권규 상임회장 ⑥ 충남 환경교육네트워크 차수철 운영위원장 질의 응답 - 참여자	
폐 회 (15:50~16:00)	폐회 및 다과	

주제발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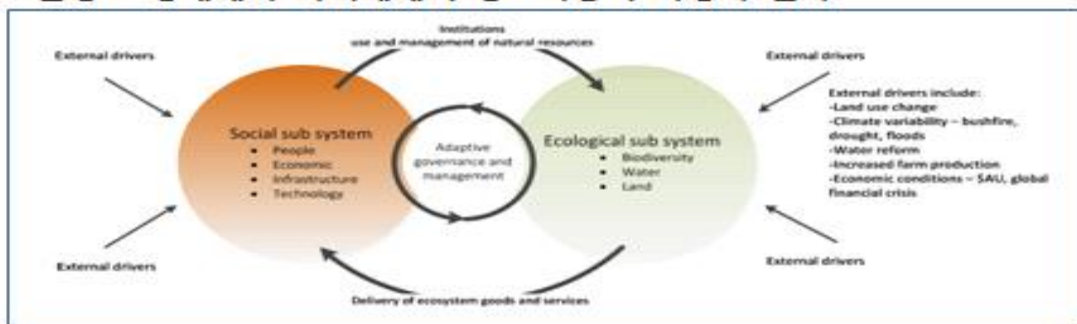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방향성 제안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이란 무엇인가?

- 환경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의 부재
 - 환경이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 환경 = 물, 공기, 토양, 생물?
 - 자연환경-인공환경 / 생물물리적 환경-문화심리적 환경 / 학교환경-사회환경?
- 환경 = 생태계와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



환경문제란 무엇인가?

“그러나 환경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점차 악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의 한계도, 환경문제의 속성에 기인한 것도 아니다. 결국 **환경문제는 <현상적으로> 자연과학적 연구대상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인간적, 사회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출처: 남상준 외(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원미사: 21.

“교육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원이라는 생각은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 양쪽에 모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기술지향주의에 따르면 생태적인 위험을 피하고 생산체계의 부작용에서 적절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의 법칙을 보다 철저히 탐구해야만 한다. 반면에 생태지향주의는 교육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고 보는데, **우리는 형이상학적 질병을 앓고 있으므로 치료 또한 형이상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페퍼 지음, 이영우 외 옮김(1989) 현대환경론 -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철학적, 민중론적 이해, 한길사: 254쪽.

환경교육의 목표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도구적 성격의 극복

- 환경교육의 목표: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
- 교육의 내재적 목표 vs 도구적 목표
 - 이번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학습자 개인의 행복과 자기실현,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환경과의 교육과정 목표로 설정했으며, 그 이유도 이런 도구적 성격의 위험성과 한계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 전통적 환경교육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교육>의 비교
 - 환경교육의 목표: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 vs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
 - 환경교육의 주요 대상: 노인 vs 유아
 - 환경교육의 내용: 생물물리적 환경 -> 사회, 문화, 경제, 심리적 환경 포함
 - 보편적 과학지식 vs 전통적, 지역적 생태지식(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은 학습 주제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철학, 가치, 방향, 이념 : **교육의 재정향**

개인의 경쟁력 향상을 넘어 다른 사람, 미래 세대, 인간 이외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력의 교육**으로서 환경교육과는 다른 위계를 가짐 -> 따라서 교육의 이념이나 추구하는 인간상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환경교육과 통합적 접근

- 환경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제6차 교육과정 때부터 인식
- 다양해진 학습 내용 요소들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의 문제
- 통합의 원리로 남상준 등(1999)은
 - 첫째, 인지적-정의적-기능적 영역이 통합적으로 구현된 인간상.
 - 둘째, 환경교육 실천 주체인 학교와 사회의 통합.
 - 셋째, 학습내용을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삶, 현실, 상황과 통합시키고자 하는 경험의 통합.
 - 넷째, 분석적, 미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총체적 관점에서 환경과 환경문제를 보는 사고의 통합.
 - 다섯째, 환경교육 내용과 학습자 간의 시공간적 통합을 제시
- 통합적 접근이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안에서 '구조적으로' 반영된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 **프로젝트 접근법의 도입**

내용체계의 변화(고등학교를 사례로)

[illegible]

아이들이 정말 알아야 할 환경지식

- 다음 중 이타이이타이 병과 관련하여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은?
 - 이타이이타이 병은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생긴 병이다.
 - 이 병에 걸리면 뼈가 쉽게 으스러지고 몹시 아프다.
 - 카드뮴이 흘러나온 광산의 개발은 일본 군국주의의 전쟁무기 생산과 관련이 있다.
 - 광산은 정권과 결탁한 미쓰이 재벌에 의해 개발되었다.
 - 이 병에 걸린 환자의 약 95%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다.
 - 이 병의 원인을 몰라 마을 사람들은 환자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이라 하여 왕따를 시켰다.

발전전략 수립 시 고려할 점들

제도화의 양면성

- 제도화는 구조와 질서를 구축하는 작업
- 제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과 배제가 작동
 - 제도화의 목표와 의미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필요
 -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중요
- 제도화는 질적 안정성 확보, 부분들을 연계하는 효과
 - 특히 사회환경교육 단체들과 학교의 연계가 중요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고려
- 배제되는 사람, 단체와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함
 - 사업비의 30%는 작은 단체, 소수자, 새로운 실험을 위해 할당해야

참여와 협력

- 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참여의 의미
 - 참여의 수준: 초기 기획과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
- 지속가능발전과 내발적 발전전략 수립
 -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
 - 무엇을 하는 것만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계획
- 세종시의 생물문화적 다양성
 - 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 언어다양성, 그리고 전통적 생태지식 기반
- 실행단계의 협력까지를 고려한 계획
 - 계획수립을 넘어 실행에 있어서의 협력과 역할 분담까지 미리 고려한 전략이 필요(예, 세종시, 교육지원청, 의제, 관련 NGOs, 전문가)

효과의 질과 양

-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균형
 -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의사결정자 설득
 - 측정할 수 없는 지표: 참여자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 합치면 늘어나는 것과 질이 달라지는 것 구분
 - 양: $40\text{ml} + 60\text{ml} = 100\text{ml}$
 - 질: $40^{\circ}\text{C} + 60^{\circ}\text{C} = 50^{\circ}\text{C}$
- 잠재성과 현실성
 -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
 - 시민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연계한 사업 구상
 - 예, 보육시설, 안전, 고령화, 주차문제, 도시계획

타산지석

- 이미 중앙정부와 많은 지방정부가 종합계획 수립
 - 중앙정부: 2009년 -> 2011년(수정)
 - 지방정부: 주로 2010년 이후
 - 2015년 현재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 중(모니터링 필요, 매칭사업)
- 공통의 사업과 프로그램: 80%
 - 타 종합계획과 시행결과를 평가해서 성공적인 사업 도입
- 세종시 고유의 사업과 프로그램: 20%
 -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의 특성 반영
 - 세종시의 자연적 조건 반영: 미호천, 원형구조, 논 등
 - 세종시에 살고 있는 시민 구성과 요구 조사 결과 반영

사업의 선후

- 범환경교육 네트워크의 형성
 - 리더쉽의 형성, 약자에 대한 배려
 - 토착 그룹과 신진 그룹의 조화, 네트워크 간사단체의 기록권 포기+적정 지원
- 종합계획 수립 + 조례 제정
 - 계획의 투명성과 참여 확보,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 필수적
- 환경교육센터 설치
 - 기존 시설의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유휴시설 조사)
 - 네트워크 사무국, 세종시 환경교육 기관, 단체를 위한 공유 공간 제공
-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준비(2015년 현재 시범운영 중)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증, 보급
 - 프로그램 성과: 양과 질의 균형성 유지, 프로그램의 다양성 강조
 - 전체 사업비의 5%는 과정 중 평가를 포함하여 평가 예산으로 확보해야

충남환경교육종합계획 사례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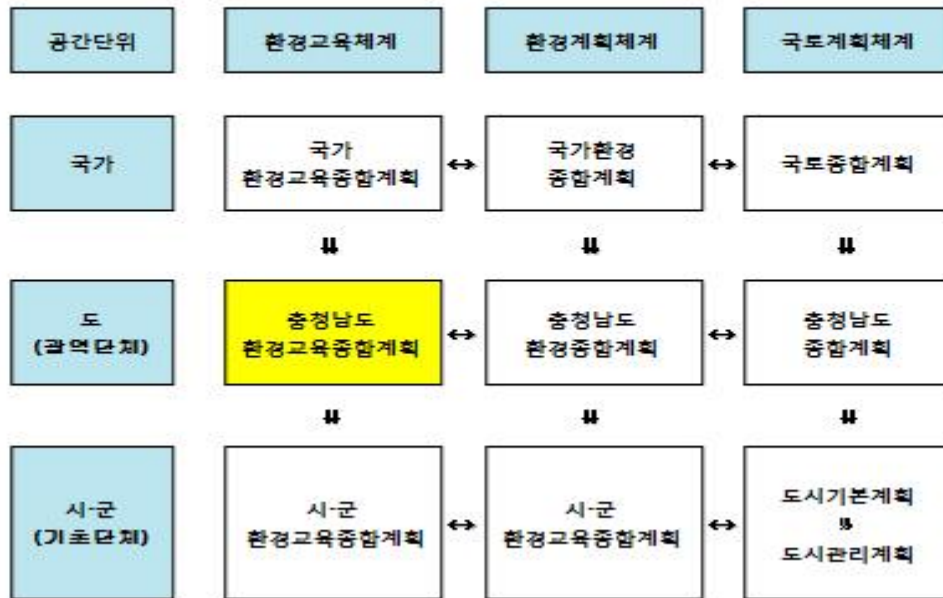
- 환경교육진흥법 관련
 -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 2010년 상반기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완료
 - 2010년 말까지 지역단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필요
-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교육
 - 2008년이래 녹색성장을 국가 핵심발전전략으로 제시
 -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녹색교육 활성화 필요
 - 지역단위에서의 체계적인 녹색교육 방안 수립 필요

연구목적

- 충청남도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 충청남도를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계획의 지위와 연계성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국내의 환경교육종합계획 관련 선행 연구 사례 분석
- 집중면담조사
 - 지자체 담당자, 시민단체활동가, 기업인, 교사, 연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 토의
- 설문조사
 - 시민단체, 학교,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충남 지역의 환경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 델파이조사
 - 약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

연구 절차

- 연구과제 분석 및 역할 분담
- 국내외 현황 분석
 - 집중면담조사, 설문조사, 선행사례 분석
 - 충청남도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기본 이념 및 방향 설정
- 영역별 핵심 과제 도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세부 추진전략 작성
 - 기본과제 10가지와 핵심과제 10가지를 개발 제시함

충남 환경교육 현황 분석

- 충청남도의 환경 특성
 - 높은 에너지 자립도, 전국 최대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 산악형과 해안형 국립공원, 금강 등 다양한 자연환경
- 역동적인 미래 변화 예상
 - 2012년 서천에 국립생태원 준공 예정
 - 2012년 충남도청 이전 예정
 -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건설
- 환경교육 현황
 - 학교: 초등학교는 기본적 환경교육 진행, 중고등학교는 매우 미약
 - 약 75개의 환경 전문 단체가 다양한 환경교육 진행
 - 그린리더 (61명) 및 충남환경교육 해설가(200여명) 양성 및 활용

설문조사 주요 결과(사회환경교육)

- 주된 환경교육 활동 유형
 - 강의, 해설: 25/27 = 92.6
 - 조사, 관찰: 16/27 = 59.3
- 선호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간
 - 2시간 이내: 17/27 = 63.0
 - 하루: 12/27 = 44.4
- 프로그램 진행 시 어려운 점(순위)
 - 예산 총당 문제: 1.38
 - 참가자 모집 문제: 2.90
 - 교육자료의 부족: 2.95
 - 강사 등 교육자 수급 문제: 3.52

전문가 집중면담 조사 결과

- 기반조성
 - 조례제정, 권역별 환경센터 지정 운영 필요성 제안
 - 환경교육의 주요 거점 허브역할 공간의 필요성 제안
- 학교환경교육 :
 - 환경교육 선택학교 확대 및 담당교사 네트워크
 - 2급 정교사의 보직 변경을 위한 연수제도
 - 교내 수질, 실내공기, 조도, 소음 환경오염 측정 프로그램 필요
- 기업 참여 :
 - 기업의 정보 및 강사제공 기회, 기업내 교육의 민간단체와 공유
 - 기업 내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기업간 교류 필요성

전문가 집중면담 조사 결과

• 교육프로그램 :

- 교육프로그램부족, 교재 자료 부족
- 교육 정보 자료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공간 필요

• 네트워크 :

- 관계기관별 유기적인 협력
- 생태해설사 양성 이후 정보, 강사 교류

• 특성을 살린 종합계획 :

- 충남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종합계획
- 목표를 개량한 종합계획 작성

델파이2차 조사결과 (환경교육 기반 구축)

주요 전략	중요도
○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정 및 시행	4.14
○ 환경개선사업 등 환경세의 일부를 환경교육재원으로 확보	4.13
○ 충청남도 내 16개 시, 군 환경교육진흥계획 작성 및 조례 제정	3.96
○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자료(교재, 도구) 패키지 개발 보급	3.83
○ 도의 등, 장기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환경교육관련 내용 포함	3.83
○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활성화(웹페이지 개발 포함)	3.78
○ 환경교육 재원 수입 확대를 위한 10대 혁신사업 기록(5쪽 참조)	3.78
○ 전체 학교(1,277개)의 약 10%(100개)를 에코스쿨로 지정, 지원	3.74
○ 환경교육 시범마을 지정, 지원	3.65
○ 환경교육 녹색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3.64
○ 충청남도 환경교육연구소 설치 및 민간 환경교육연구소 설립 지원	3.61
○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충남10대 기업의 선정 및 협력체계 구축	3.57
○ 프로그램 인증제 대비 100개 환경교육 베스트 프로그램 발굴 지원	3.57
○ 충청남도 환경교육 한마당(전시, 발표, 워크숍, 시상 등) 개최	3.57
○ 충남 환경교육센터 지정, 지원 및 센터들의 네트워크 구축	3.57
○ 충청남도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 개발 적용	3.52
○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 운영	3.35

델파이2차 조사결과 (학교환경교육 영역)

추진 전략	평균
○ 중·초·고등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1시간 이상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4.22
○ 중학교 '환경',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과목 선택 확대	4.13
○ 저탄소 녹색생활을 위한 학교급별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4.13
○ 환경교육 장의인성교육을 위한 도 지정 과목으로 선정, 지원	4.09
○ 중·초·고등학교와 교육청 사이의 협의, 협력체계 구축	3.96
○ 중·초·고등학교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3.91
○ 중·초·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내 환경교육 담당부서 설치	3.83
○ 체험형, 문제해결형 환경교육 교육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78
○ 과교과 환경교육센터 등 지역 환경교육 거점으로 활용	3.77
○ 중·초·고등학교 환경에 대한 환경교육 인성 교과서 시리즈 개발 보급	3.74
○ 중·초·고등학교 교사는 연간 최소 2시간의 환경교육 연수 의무화	3.70
○ 합리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환경교육 100개 프로젝트 공모, 지원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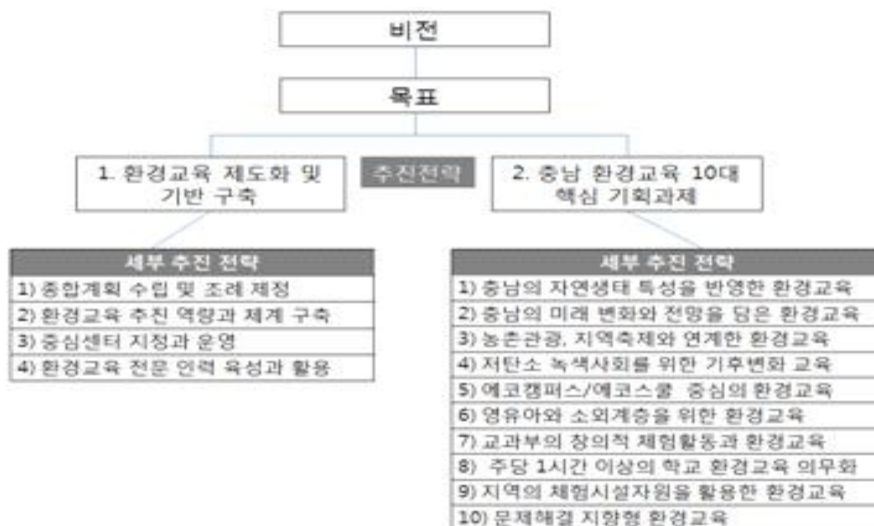
델파이2차 조사결과 (사회환경교육 영역)

추진 전략	평균
○ 지킴이 프로그램 다각화(농업, 서해안, 절경, 국립공원 등)	3.84
○ 총과 에너지 사용량 10% 줄이기 환경교육 운동	3.80
○ 기업 및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환경교육(매년 10개 기업씩 확대)	3.76
○ 폐기물과 이산화탄소 발생량 10% 줄이기 환경교육 운동	3.76
○ 16개 시군별 지역 환경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3.76
○ 농촌관광, 생태관광과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	3.75
○ 16개 시군별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모델개발 및 시범운영	3.72
○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	3.68
○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대비 우수 프로그램 발굴 사업	3.64
○ 중·초·고등학교 사회환경교육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3.52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대비 경력별 향상과정 운영	3.50
○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농·어·산촌 환경교육 지원 사업	3.48
○ 환경교육기관에서의 성인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3.40
○ 중·초·고등학교, 도서관, 박물관(충민관, 금강, 해안 등) 활성화	3.36
○ 합리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교-사회 환경교육 연계 프로젝트 100개 지원	3.36
○ 지역의 박물관, 체험관 등을 활용한 환경교육 활성화	3.36
○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확대	3.28

비전과 목표

- **비전**
 -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생애환경교육 학습도시 충남 건설
- **목표**
 - 환경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학교-사회환경교육 연계 강화 및 활성화
 - 학교 창의인성교육의 핵심전략으로서의 환경교육 정착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제해결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추진전략**
 - 환경교육 제도화 및 기반구축을 위한 10대 기본전략
 - 충남 환경교육 특성화를 위한 10대 핵심전략

추진체계



추진 지표

- **환경교육 의무화**
 - 2015년까지 매년 40만 도민이 연간 최소 2시간의 환경교육 참여
 - 아동과 청소년은 매주 최소 1시간의 환경교육 참여
- **환경교육 지도자 육성**
 - 2015년까지 5천명의 지도자 육성
- **환경교육센터 지정**
 - 2015년까지 4개의 광역 및 기초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2015년까지 200개의 인증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환경교육 예산**
 - 2015년까지 매년 도민 1인당 1만원, 총 40억의 예산 확보

환경교육 제도화 및 기반구축을 위한 10대 기본전략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군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지원 • 충남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환경교육 추진역량과 체계 구축(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활성화 • 충남환경교육연구소 설립
환경교육센터의 지정과 운영(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환경교육 중심(광역거점)센터 지정 • 충남환경교육 지역센터 지정
환경교육 전문인력 육성과 활용(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및 활용 • 교사 환경연수 지원 • 충남환경교육 실천단 구성

충남 환경교육 특성화를 위한 10대 핵심전략

- 1) 충남의 자연생태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 2) 충남의 미래 변화와 전망을 반영한 환경교육
- 3) 농촌관광, 지역축제와 연계한 환경교육
- 4) 저탄소 녹색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에너지 연계 교육
- 5) 에코캠퍼스/에코스쿨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 6) 영유아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교육 지원 확충
- 7) 교과부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환경교육
- 8) 주당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의 의무화
- 9) 지역의 과학관, 박물관 등 체험시설을 활용한 환경교육
- 10) 문제해결지향적 환경교육 - 10% 감소 전략

환경교육진흥조례(안)

- 명칭: 충청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안)
- 소관부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구성: 17조와 부칙
- 주요내용
 - 기본이념
 - 도지사의 책무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운영
 - 학교와 사회의 환경교육 지원
 -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

제안

- 환경교육집현전
 - 환경교육 종합계획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TF 팀
 - <집현전> 현재 세종시민대학의 이름으로 사용 중
- 시민박물관
 - 신도시 세종에 역사성을 부여
 -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작고 다양한 박물관

감 사 합 니 다

『세종시 환경교육 기반현황 및 비전』

세종시 환경정책과 전석천 과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2015. 0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정책 과]

목 차

I. 환경교육 개요

II.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 및 문제점

① 환경교육 현황

② 문제점

III.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기반

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지원조례 제정

②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③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④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 운영 계획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⑤ 다양한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⑥ 기후 ·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기후변화 교육 확대

⑦ 공무원 및 기업체 종사자 환경교육 강화

⑧ 학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I 환경교육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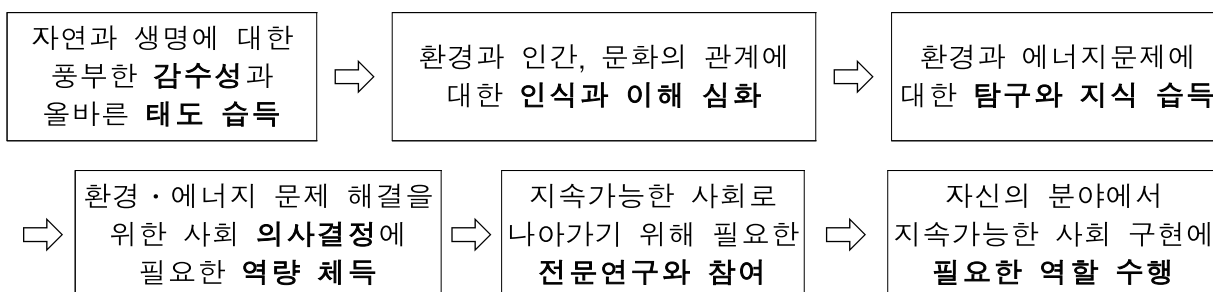
□ 환경교육 개념

-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 교육 실시장소 및 대상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으로 구분

□ 환경교육 목표

- 지속가능한 사회에 적합한 행동하는 시민 육성
- 친환경적 사회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

□ 환경교육 과정



□ 환경교육 체계

주요 방향	주 체	방 법	대 상
학교 환경교육	학 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 자율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유아, 초중등 및 대학생 교사
사회 환경교육	국가(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주체별 전문과정, 체험학습 등 자율적 프로그램 개설 운영	환경전문인 학생, 일반시민 등

II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 및 문제점

1 환경교육 현황

<p>2014 주요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해설사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 14회 546명, 심화교육 13회 286명 • 강길산길 생태탐방 8회 300명, 우수경관 생태탐방 4회 151명 ■ 기후변화교육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24회 784명, 환경학교 1회 23명 • 온실가스 저감활동 운동가인 그린리더 양성 : 초급 34명, 중급 34명 ■ 다양한 시민환경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 초등학교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 32회 785명 • 기후변화대응 시민한마당 2,000명, 환경보전실천보고대회 800명 • 하천유해식물 제거사업 3회 160명 •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연료화시설 등) 개방 및 견학 : 연중 1,579명
<p>2015 상반기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제실천사업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해설사 대학 양성 과정(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시민대상 자연해설사 양성, 세종시 주요 생물자원과 서식처 탐방 - 참석 : 15회 43명 수료 • 토요체험학교-지구와 로컬푸드이야기(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로컬푸드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체험, 슬로푸드 체험요리 등 - 참석 : 7회 33명 • 하천유해식물 제거사업(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하천 생태계 교란식물(가시박 등) 강의 및 제거 실시 - 참석 : 5회 150명 ■ 시민참여 환경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대청결을 통한 시민환경교육(3월,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국토대청결 운동 실시로 시민교육·홍보 및 환경보전의식 고취 - 대상 : 학생, 단체, 공무원 등 1,100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교육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비산먼지(소음·진동)사업장 관리요령 및 저감대책 등 - 대상 : 기업체 직원, 공무원 등 120명

**2015
하반기
계획**

■ **지방의제실천사업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활동**

-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7월 ~ 11월)
 - 내용 : 자연환경 체험, 생활 속 녹색 실천 등 맞춤형 방문 및 현장 교육
 - 대상 : 찾아가는 환경교육 신청기관, 단체 등

■ **기후.환경네트워크를 통한 기후교육 추진**

- 찾아가는 기후학교 실시(9월 ~ 11월)
 - 내용 :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방법 등
 - 대상 : 찾아가는 기후교육 신청기관, 학교 등
- 그린리더 양성교육(8월 ~ 10월)
 - 내용 : 기후변화와 에너지, 탄소포인트의 이해, 실천활동 등
 - 대상 : 학생, 시민 및 기업체 등

■ **기업의 환경교육 참여 활성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특별교육 실시(10월 중)
 - 내용 :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및 오염사고 대처방안 등
 - 대상 : 배출업소 100개소(관련책임자)

2 문제점

- **환경교육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세종시 차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 미흡**
 - 세종시 환경교육조례 : 미제정
 - 세종시 환경교육계획 : 미수립
-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연계성 부족**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특성에 따른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환경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연계 프로그램 부족
- **자연체험 활동 위주의 단편적·일률적인 교육**
 - 주로 소규모·생태체험 위주로 운영되며 강사진, 시설 등 체계적 지원이 부족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대국민 접근성 부족**
 - 환경교육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들이 지역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안심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부재

Ⅲ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 기반

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 현황 및 필요성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되어 시행('08.9.22) 되었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민간활동 지원 명시(법 제4조)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조례」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원론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독립된 조례 마련이 시급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조례」 제29조 : 환경교육 및 홍보

□ 추진방안

- 조례 제정 목적 : 환경교육 법적 기반 마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 조례 주요 내용
 - 환경교육 목적, 정의, 책무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 재정지원 등

□ 추진 일정

- 연내 제정('15.10월 조례안 작성, 입법예고)

사업명	추진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 현황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환경교육을 통해 녹색시민을 육성하여 녹색성장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
-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008.9월 시행)
 -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

□ 추진방안

- 작성방향
 - 환경교육 5개년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 도출
 - 업무협의를 통해 세종시 교육청과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계획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환경교육 목표 및 방향 제시
 - 환경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
 - 환경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환경교육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방안

□ 추진 일정

- 제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16~’20) 내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

사업명	추진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환경 교육계획 수립						30	세종특별자치시

3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환경교육 장기비전을 실현하고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 전반을 총괄 지원하는 체제 구축 필요
- 환경교육공간, 정보 제공, 전문가 양성, 연구개발, 네트워킹 등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위해 필요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추진방안

- 세종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통한 교육 거점 확보
 -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육성
 - 신청기관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등을 검토 후 지정
- 환경교육센터 주요기능 : 시 환경교육 총괄
 - 교육·양성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도자·전문인력 양성 등
 - 연구·개발 :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 연구개발, 보급 등
 - 네트워크 :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국내외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등

□ 추진 일정

- 센터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전수조사(지정요건 부합여부 검토)
-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사업명	추진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기관
	2015	2016	2017	2018	2019		
환경 교육센터 전수조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교육센터 지정· 운영		사전	준비			300	세종특별자치시

4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추진배경

-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에 필요한 친환경 생활상 (Eco-lifestyle)을 제시하고,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매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의 구매기반은 미흡
- 민간에서 녹색제품 소비 확산을 주도하는 센터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

□ 그동안 추진상황

- 시민단체 의견수렴(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등 5개 단체, '14.7월)
 - 수렴 결과 친환경적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의견
- 자료수집관련 선진지 견학(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15.2월)

□ 추진일정

- '16년 본예산 확보 확보('15.09, 연 200백만원)
- 센터 설치대상지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16.03)
- 공개절차(공모)를 통한 위탁기관 선정 지정('16.06)

사업명	추진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전 준비				60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5 다양한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국·시비 지원사업)

구분		계	2014	2015.6.
지원실적	단체수	4	2	2
	지원비	31,429천 원	14,286천 원	17,143천 원
교육실적	횟수	37회	22회	15회
	인원	1,491명	846명	645명

- 다양한 주제를 연계한 통합형 환경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에너지, 기후변화, 자원순환, 환경보전, 생태 등
 - 최근에는 에너지 적정기술, 실내공기질 등의 시의성 있는 내용 요구

□ 추진방안

- 기존 환경교양, 체험교육은 지속하면서 시대흐름에 맞게 보완 발전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등 강화
 -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확대
- 시 산하 환경기초시설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 시 산하 환경기초시설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 환경교육 한마당, 토요체험학교 등 지방의제실천사업과 연계 추진

□ 추진일정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15~'16)
- 단체 및 기관의 환경교육 사업 지원(우수사례 발굴, 보급) 등('15~'16)

6 기후·환경네트워크를 통한 기후변화 교육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민·관 파트너십 형의 “저탄소사회 국민실천 네트워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녹색실천 등 친환경 교육으로 실천하는 녹색시민 양성
- 주민참여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생활 유도

❖ 「세종 기후·환경 네트워크」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에너지 절약 운동 등)의 확산·보급으로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구성
- 사회 각 분야의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형의 “저탄소사회 국민실천 네트워크”

※ 2008년 10월 전국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구성·운영 중이며, 우리시는 2012년 11월 구성, 2013년부터 실천운동 전개

□ 추진방안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과 연계한 기후변화대응 교육 강화
 - 그린리더 교육수료자의 기후학교 강사활용 등 녹색생활 운동 확산
- ※ 그린리더 등 교육강사 DB구축, 인적자원으로 활용
- 교육, 실천사업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 온실가스-가정진단,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

□ 추진일정

-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15~'16)
-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홍보 프로그램 운영(체험교육 등)('15~'16)

7] 공무원 및 기업체 종사자 환경교육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환경교육(환경, 수질, 생태, 에너지 분야 등)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의식 부족
 - 환경관련 공무원의 경우에도 환경실무, 기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룸
-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고갈 등의 환경문제 인식으로 기업의 책임 의식 고취 및 친환경경영 유도

□ 추진방안

- 공무원 환경교육 강화
 - 공무원 환경교육 연수 등 참여를 적극 권장, 환경강의 지원
 - 각종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교육 확대
 - 공무원 체험환경교육 기회 제공 : 환경우수도시 견학 등
- 기업의 환경교육 참여 활성화
 - 기업체에 환경체험교육이나 친환경 경영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 관련 강의 등 환경교육 확대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대응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공무원 환경교육 강화('16~'17)
- 기업의 환경교육 참여 활성화('15~'17)

8 학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은 각각 자체로서 완결성 부족
- 학교환경교육 / 사회환경교육 비교

구 분	학교 환경 교육	사회 환경 교육
장 점	지속성, 체계성	다양성, 현장성, 쟁점중심
단 점	다양성과 현장성 부족	지속성과 체계성 부족
대 상	학 생	시민 전체
교육내용	학교 환경 교육과정의 내용	개인, 집단의 목적에 따라 유동적
교육방법	조사, 사례연구, 탐구학습, 강의 토론, 실험, 관찰, 역할놀이 등	환경체험교육, 강의, 토론, 시청각교육등
교육기간	대체로 장기적(학기, 학년)	비교적 단기간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 환경교육과 연계 필요
 -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기회 제공, 사회 환경교육 단체의 역량 강화

☐ 학교 및 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방법
 - 교육청(학교)과 단체의 파트너십 형성후 상호 역할분담
- 추진내용
 - 학교 : 교사, 학생 등 학습참여, 시간 및 공간지원 등
 - 단체 : 체험학습프로그램 등 프로젝트 계획수립 및 실행
- 제정지원 : 필요시 시에서 단체에 사업비 지원

☐ 추진일정

- 2016 공모사업을 통한 시범운영 후 확대 실시

토론 2

『세종시 학교환경교육 현황 및 비전』

세종시교육청 창의진로과 김성미 과장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2015. 9.



[창 의 진 로 과]



차 례



I. 학교 환경교육 목표

II. 학교 환경교육 추진 체계

III. 학교 환경교육 현황

IV.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V. 기대 효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창의진로과

I 학교 환경교육 목표

-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 환경 감수성과 환경 소양을 길러 자연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지향
- 환경 친화적으로 사고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 육성

II 학교 환경교육 추진 체계

- 교과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
 - 초·중·고 전학년 교과 영역에서 운영

학교급	교과	운영 내용	학년	차시
초	도덕	자연 사랑과 환경보호	4학년	4차시
	사회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 지구촌과 지속 가능한 발전	5·6학년	24차시
	과학	생활과 환경, 생물과 우리생활	6학년	9차시
	실과	쾌적한 주거와 생활 자원 관리	6학년	5차시
중	환경과 녹색성장	환경과 인간, 환경과 환경보전, 지구 환경과 기후 변화	학교별 선택	17~34차시
고	환경과 녹색성장	환경과 인간, 환경과 환경보전, 지구 환경과 기후 변화	학교별 선택	17~34차시

○ 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 에너지절약 절전노트 쓰기, 탄소 줄이기 5대 생활과제 실천
- 물 사랑 운동 전개, 쓰레기 분리 수거하기, 일회용품 안 쓰기
- 숲체험, 텃밭가꾸기, 농촌체험활동 등 체험 중심 환경체험교실

III 학교 환경교육 현황

○ 교과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 초등학교 환경교육 현황

학교 현황				환경교육 현황	
총 학교수 (개교)	총 학생수 (명)	창의적체험 활동총시수 (시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 (명)	창의적체험활동중 환경교육연간시수 (시간)	방과후학교 환경교육 학생수 (명)
35	14,129	24,201	11,235	1,796	540

-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

계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선택 학생수
중 학교	17	3	241
고등학교	13	0	0

-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담당교사 현황

구 분	계	환경과목 담당교사			
		환경관련 전공자		연수후 환경 교사자격취득	상치교사 등 그 외
		환경교육 전공	환경교육외. (공학 등) 전공 ※환경교육부전공자포함		
중학교	7	2	5	0	0
고등학교	0	0	0	0	0

(‘15.8.1.현재)

○ 선도학교, 교사연구회 등 각종 환경교육 활동 현황

- 녹색환경동아리 운영(2013) : 초 23교, 중 10교, 고 7교 운영

- 지속가능발전교육 선도학교 운영(2013~2014) : 도담중

- 방과후 환경학교 운영(2014) : 한솔중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교사연구회 운영(2015)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교사연구회란?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전국적으로 40개 연구회를 선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범교과 또는 교과 연계 ESD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천하는 연구회임

○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현황

- 에너지관리공단 절전노트 배포 및 경진대회 참가(2013~2015)

시기	초등학교 참여수	중학교 참여수	총 배포수
2013	18교	7교	6,118부
2014	19교	10교	7,377부
2015	25교	11교	12,183부

- 금강유역환경청 푸른 환경지킴이 학교 운영(2014) : 미르초
-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참가(2014) : 연서초
- 환경부 SBS 물환경대상 및 환경영상 콘테스트 추진 홍보 : 원장
및 학교장 회의('15.7.7.)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와 업무협약(MOU) 체결('15.7.8.)
※ KEI와 함께 하는 환경교실 참가('15.7.16.) : 연서중
-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포럼 참가 및 발표(2014~2015)

IV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환경 교육과정 개정 방향》

- 개인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동시 추구, 환경 핵심역량*(6개)의 설정 및 반영, 통합적 접근의 확대, 지속가능발전 교육 지향으로 설정
*환경감수성, 환경 공동체 의식, 성찰통찰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 환경정보활용 능력
- 중학교는 학습자가 처한 삶의 맥락에서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 중심의 실천적인 탐구 활동 강조
- 고등학교는 환경의 자연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예술적 측면도 비중있게 다루면서 생활환경 쟁점 탐구나 환경 사건 심층탐구 등 학습자 중심의 탐구 활동 확대

1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초등 환경교육 교수·학습 자료 발굴
 -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환경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전문적 학습 공동체 :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 및 학습 모임
- 체험과 활동 위주의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환경 교과 교육 연구회를 통한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중·고등학교 선택 과목 확대 노력
 - 중·고등학교 환경 과목 선택 확대 권장
- 1학교 1환경 실천운동 실시(2016~)
 - 텃밭 가꾸기, 절전노트, 교내 환경문제 탐구 대회 등

2 환경교육 관련 교사 역량 강화

- 교사 직무 연수시 환경교육 관련 내용 요구(연수원 협조)
 - 각종 교사 직무 연수시 환경교육 관련 내용 실시
- 환경교육 선도 교사 양성
 - 전문적 학습 공동체 중심으로 선도 교사 양성 추진
- 환경교육 관련 학교 자율 연수 활성화
 - 단위학교 자율연수 권장
 -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동아리 운영

3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동 강화

- 환경보전 캠페인 실시
 - 초·중·고 학교별 환경보전 캠페인 실시 권장
 - 환경관련 교내 자율연수
- 절약 습관형성 에너지 절약 교육 강화
 - 방학 전 에너지 절약 특별교육 실시(7월, 12월)
- 환경관련 학교별 학예행사
 - 세계 물의 날(3월 22일), 지구의 날(4월 22일), 환경의 날(6월 5일)을 전후하여 다양한 행사 권장

4 지역 환경자원을 이용한 환경체험교육 운영

- 지역 환경체험학습장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수변공원, 세종호수공원 등
 - 각 학교별 연 1회 이상 환경체험학습 실시
- 지역 생태환경 조사 및 하천 가꾸기 활동 전개
 - 세종시 하천 및 호수공원, 고북저수지의 생태환경 조사하기
 - 각 학교 환경지킴이 동참하여 활동하기
 - 3대 하천 정화운동 참여하기

- 지역의 숲체험 프로그램 활동 참가 권장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자율참여 유도
- 환경 유관기관 연계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실정에 적합한 유관기관 연계 환경체험교육 실시
 - KEI와 함께하는 환경교실 운영 및 탐방 프로그램 참여

5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표창 및 일반화

-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표창
 - 유·초·중·고 학교급별 2개교씩 선정하여 학년말에 학교 표창 실시
 - 우수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 보급 및 일반화

V 기대 효과

-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활성화
-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환경보호 프로그램 운영
-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바람직한 에너지 절약 교육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 지역 환경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활성화

토론 3

『행복도시 내 환경교육 기반조성 현황 및 비전』

행복도시 건설청 녹색에너지환경과 이능호 과장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 행복도시와 세종시

[면적]

465km²(서울 약3/4) / 73km²
(분당 4배)

→ 세종시의 약1/5

[출범]

'12년 7월 / '06년 1월
(세종시) (행복청)

[역할]

예정지역 : 행복청 (신도시)

예정지역 밖 : 세종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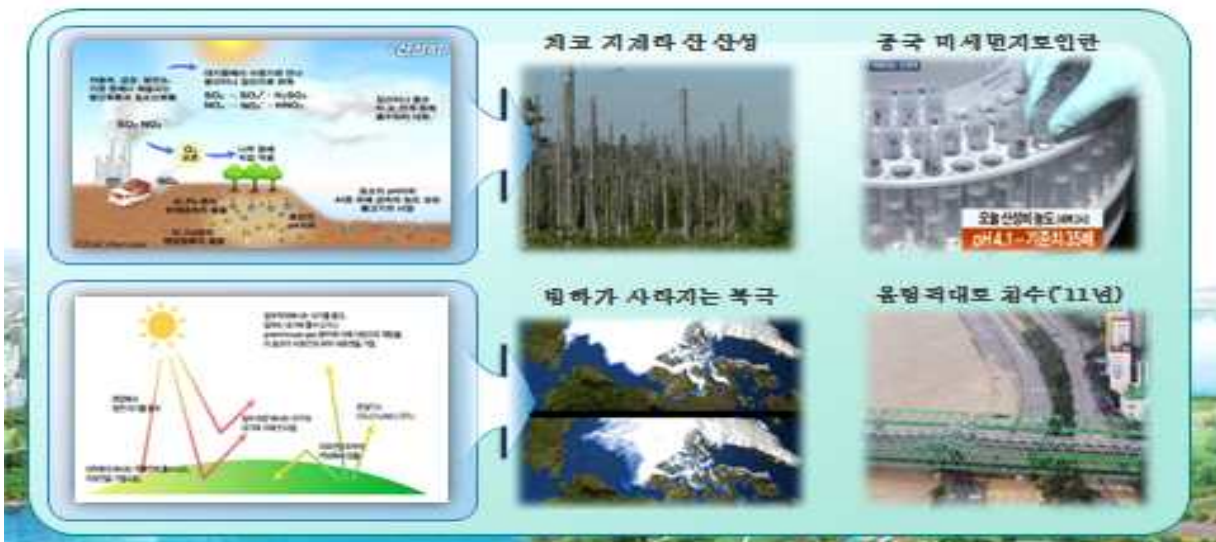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I. 오늘날 지구환경

(1)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피해사례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I. 오늘날 지구환경

(2)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 규제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II. 우리나라 에너지 도입 현황

에너지수입율 97% (에너지소비량 세계 8위)

에너지원별 공급 비율

- 석유 48.4%, 전력 19.4%, 석탄 15.5%, 도시가스 12.1%, 신재생에너지 3.7%

부분별 에너지소비량

- 산업 62.3%, 수송 17.8%, 가정 및 상업 17.8%, 공공기관 2.1%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및 온실가스 배출

우리나라(2035년) 11%, 일본 53%, 독일 20%

※ 온실가스 발생량 1990년 : 241백만tco2 → 2011년 : 598백만tco2 **약 2.5배 증가**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 정책

목표 “The World Best Green City”

감축 및 도입	<p>BAU 기준 2030년 행복도시 총 에너지 소비량 698,073 TO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₂ 배출: 2,280천 toe/yr - 저감 1,685천 toe/yr(배출량의 73%) - 신재생에너지 도입: 106천 toe(에너지소비량의 15% 이상도달)
분야별 추진대상	<p>CO₂ 감축 이행(12개 분야)</p> <p>① 건축물 ② 수송 ③ 수목수질 ④ 에너지저장 ⑤ 열병합 ⑥ 태양광 ⑦ 태양열 ⑧ 지열 ⑨ 연료전지 ⑩ RDF ⑪ 소수력 ⑫ 바이오가스</p> <p>신재생에너지 도입(7개 분야)</p> <p>① 태양광 ② 태양열 ③ 지열 ④ RDF ⑤ 연료전지 ⑥ 소수력 ⑦ 바이오가스</p>
관련 법	<p>「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p> <p>「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p>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도입 상황 총괄

수목, 수림조성
녹지율 52% 호수공원, 수목원

탄소배출 감축	세종 천연가스발전소, 지역난방공사, 소수력발전소 건설운영 녹지공원 조성 등
친환경 에너지 도입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 제로에너지빌딩, 신재생에너지 도입 스미트그리드 실증사업 → 전기·열 에너지 효율적 관리운영
친환경 교통망 구축	Two-Ring 환상형 도로망 → CNG, 전기 등 친환경 BUS도입 → 자전거도로 구축 및 어슬당 운영
첨단환경 기초시설	자중크단넷, 폐기물연료화시설, 수질복원센터 → 폐적한 자원 순환시스템 구축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1) 도입사례 (태양광)

행복도시내 총 12.4MW생산 (년 4,500가그 공급량)

▶ 온실가스 감축량 : 5,623 TCO₂ /year

- ① 대전-유성간 자전거도로에
약 1,875kWp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 ◆ 연간 발전량 : 2,313.19만 kWh/year
 - ◆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절감 : 981톤/year
 - ◆ 잣나무 심은 효과 : 216,510그루
 - ◆ 세종시민 609여 가구 연중 사용가능



- ② 행복도시 호수공원 주차장에
약 999kWp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 ◆ 연간 발전량 : 125만 kWh/year
 - ◆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절감 : 532톤/year
 - ◆ 잣나무 심은 효과 : 117,404그루
 - ◆ 세종시민 400여가 구 연중 사용가능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2) 도입 과제(태양광)

-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 ◆ 태양광 대여사업
 - ▶ 가구당 약 10%전기를 절감효과
 - ◆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 건물이용 태양광 발전
- ◆ BIPV 등 활용으로 건물소요 전력 분산화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녹색도시 제철센터(강릉)



여의도 전경전회관(서울)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2-1) 공동주택 태양광대여사업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2-2) 태양광전기 어떻게 사용되는가?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2-3) 도입사례(제로에너지하우스, 추진중)



에너지 사용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주택**

→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건축기법**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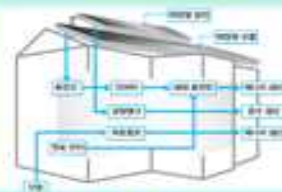
도입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연간
전기로
비교

구분	연간전기료	10년 대비 절감액	비고
조 태양광+지열	858천원	-	
조 태양광	3,033천원	2,345천원	
조 일반주택	3,316천원	3,128천원	



※ 주택건물면적 2~1000㎡ 중 10㎡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 **지속적 냉난방으로 쾌적한 환경에 만족도가 높음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3) 도입사례(스마트그리드)

첫마을 공공기관 스마트그리드 실증결과

거점 전력망에 정보,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
교환으로 지능형 수요관리

· 신재생 에너지 연계, 전기차 충전 등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4) 도입사례(친환경교통)

Two-Ring 구조 교통망
- 간선버스 운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 버스 운영
- BRT 및 올레브(전기차) 도입·운영



자전거도로 확충 401km
- 공공자전거(어스릭) 보급 및 운영
(230대, 29개 대여소 운영)

도시공원

2,014만㎡

(33.23㎡/1인당)

〈타도시와 비교〉

서울 8.6, 대전 7.7, 경기 8.2

판교 28.4, 광교 24.1,

동탄 13.7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5) 도입사례(청탄에너지)

온실가스 357,359 TCO₂/yr 저감
(2030년 기준 CO₂ 저감 잠재량 전체의 15.7%)

세종천연가스발전소

가구당 월 1만원 정도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건설된 세종천연가스발전소를 통해,
영속도시 약10만 세대의 전력과 난방열 공급

- ◆ 발전설비 530MW
- ◆ 열공급설비 391Gcal/hr



지역난방공사

각각의 건물물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청탄오염방지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온수를 대단위 지역에 유통 공급

- ◆ 청두부하보일러 1기(103Gcal/h)
- ◆ 축열조 1기(50,000㎥)
- ◆ 지역난방순환펌프 6대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6) 도입사례(소수력발전, 중앙공원)

세종보 소수력발전

금강하천에 세종보를 설치 담수된 물의 낙차를
이용 전력생산 (홍수조절, 청정에너지 생산)

- ◆ 770kW 3대, 2,310kW
- ◆ 연간발전량 12,19만kWh (1만명,1년간 사용가능)
- ▶ 2만배럴 원유수입 대체효과 및
- ▶ 5,519tCO₂/yr 온실가스 감축효과저감



중앙공원

환상형 도시 중심에 위치한 녹색심장이며, 행복도시
전체 공원 녹지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랜드마크 시설
(생태습지 공원 및 생산의 대지 조성)

- ▶ 금계구리 보존 및 생태학습 교육장으로 활용
- ◆ 141만㎡, 1,641억원
- ◆ 2019년 개장 예정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7) 도입사례(원단환경기조시설 운영)

자생크린넷 (생물폐기물수거)

음식물 및 일반생물폐기물을 자원에 매입된
수송관으로 각각 수거

배출이 없고 쾌적한 위생적인 도시 조성

폐기물연료화시설 (일반생물폐기물처리)

일반생물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선별,
파쇄, 성형하여 고형연료를 생산
생물폐기물을 연료로 재사용

수질복원센터 (생물오수처리)

일반생물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선별,
파쇄, 성형하여 고형연료를 생산
처리수를 화장실 및 조경용수로 공급

크린에너지센터 (음식물폐기물-바이오가스)

음식물 및 일반생물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선별,
파쇄, 성형하여 고형연료를 생산
음식물 및 일반생물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
바이오가스 에너지량 5214tE (2605가리)
온실가스 8800 tCO₂ eq 저감 효과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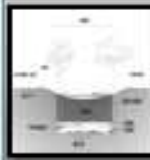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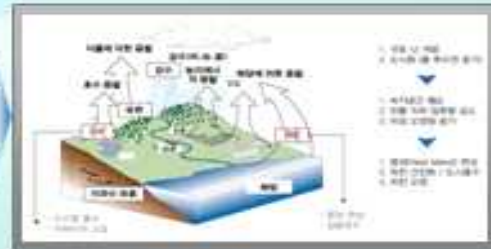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IV. 행복도시 친환경에너지정책

(8) 도입사례(6생활권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물 순환을 회복시켜 열섬현상 완화, 자원재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절감 등 친환경도시로 개발
→ 온실가스 감축 및 열섬현상 완화 등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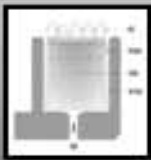
- ◆ 6생활권 면적 6.9㎢(총면적의 9.5%)
- ◆ 15년 착수, 20년 완료



하수정화지



나무어과장지



하수정화지



하수정화지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V. 각 부문별 역할 및 협조사항



온실가스감축 = 에너지 절약 노력에 관련
우리 모두가 참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시다

① 환경정책의 지속적 추진

- 2030년까지 계획된 그린시티 종합계획 목표 달성

② 행복-세종간 유기적 협력(행정부, 의회)

- 행복도시(예정지역내), 세종시(예정지역밖) 공동사업 발굴, 역할분담, 예산지원(지자체 인센티브 등) 협력

③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경 실천 등 참여

- 자전거이용,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분리 수거,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활용 참여

④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례홍보

- 에너지 절약 (한동 끄기, 냉난방 시간, 적정온도 유지, 수도꼭지 아끼기, LED 전등 교체, 태양광 설치, 등)

『세종시 유아시설 환경교육 현황 및 전망』

한국 숲 유치원협회 세종지회 이경순 지회장

숲이 아이들의 교사가 되게 하라

세종시 유아교육기관 환경 (생태 · 숲) 교육 현황 및 전망

2015. 9. 24



새 한국 숲 유치원 세종지회장

목 차

- I. 들어가는 글
- II. 유아환경(생태·숲)교육의 현황
 - 1. 생태교육의 필요성
 - 2. 숲 유치원 교육의 필요성
 - 3. 지속가능 발전(ESD)과 숲 체험활동
 - 4. 숲 유치원의 교육적인 효과
 - 5. 세종시 숲 유치원 활동 현황
- III. 세종시에 대한 제언
 - 1.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제정
 - 2.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운영
 - 3. 세종시의 산림자원 이용환경조성
- IV. 맺는말

2015 세종시
유아교육기관
환경
(생태·숲)
교육현황 및
전망



I. 들어가는 글

국제연합 UN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조건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융·복합교육, 즉 UN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선포했다. 변화하는 삶의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틀 안에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경제적인 부도 가능하고 자연의 근간도 보존하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의 어울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에 기여한다.(2011, Stoltenberg & Thielebein-Pohl) 세계교육의 방향이기도 한 UN지속가능발전교육은 2005년부터 유네스코에서 주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유아교육계에서는 현대 유아교육에 대안교육으로 자연주의 유아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숲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본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자연속에서의 놀이를 잃어버리고 그로인해 아이들이 암암리에 아이다움까지 상실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에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토론회에서는 숲유치원과 접목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아환경(생태·숲)교육의 현황

1. 생태교육의 필요성

▶ 생태교육의 필요성

- 체험교육과 이론 교육 학습 효과 비교>> 7:1
즐거움, 기쁨, 자유가 있을 때 효과적이고, 교육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효과가 증대된다.
- 자연과 놀이하는 법을 알면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며 지키려고 한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좋아하도록 하고, 나중에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의 경험이 묻어나온다.
놀이는 기쁨+자유
- 자연을 체험하지 않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체험측면이 빠졌기에 100% 표현은 될 수 없다.
체험을 못한 아이들: 나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 생명체라는 의식부터 심어 주는게 필요하다.
아이에게 전달할 때 적당한 의식화는 필요하다.
아이에게 전달할 때 적당한 의인화는 효과적이다.



현대 사회는 나날이 규격화 산업화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유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타고난 순수함을 유지발달 시켜나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즉, 오늘

날의 유아들은 문명의 이기와 TV의 영향 등으로 운동부족 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로 정상적인 발달이 장애를 받고 있으며, 갈수록 자연에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아들을 위해 숲 체험활동이 좋은 교육적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자연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숲에서 나무에 오르거나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자연 속에서 놀잇감을 찾으며 자연과 친해지기보다는 TV나 인터넷, 혹은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구의 환경을 걱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자연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존재한다.

오래 전부터 여러 학자들은 환경 중심의 교육을 주장해왔다. 체험교육은 급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학교에서 비디오로 학습을 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매우 오래된 교육 이론이다. 환경교육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체험교육은 자연세계에서 감각을 이용하는 것을 중시한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다 보면 집중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이 줄어들고 인지능력이 높아지며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저항력도 늘어난다는 새로운 연구 보고도 있다. 자연결핍장애(리처드 루브, ‘자연에서 떨어진 아이들’)는 인간이 자연에서 멀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감각의 둔화, 주의집중력 결핍,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발병률 증가 등을 포함한다.

특히 문제아동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아이들에게 자연에서의 프로그램은 뚜렷한 효과가 있다. 특별히 치료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라도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십여 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 결과 자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존감, 리더십, 학업, 성격,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다.

그렇다면 아이들과 자연을 이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른들이 먼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점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자연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깨닫고 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과서만 배울 때보다 자연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 과학에 더 친숙해진다. 오감을 통해 얻어진 체험학습은 단순히 과학 교과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과 과정과 연결 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나비정원, 새 모이통 만들기, 꽃밭 가꾸기, 수생식물 키우기 등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환경적 요소로서의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건 배우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직접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뽑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일고 있는 학교 숲 가꾸기 등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좀 더 체험 가능한 실질적인 숲이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숲이나 하천, 갯벌을 찾아 활발하게 움직일 만큼 ‘자연체험’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체험’이라는 것을 단순한 놀이나 학습이 아닌 교육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현 제도권 교육을 보면, 체험위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준비나 일선의 움직임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험위주의 교육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숲이라는 자연을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숲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숲 체험 교육은 숲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어야 하며, 아울러 숲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즉 어린이들이 숲 생태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는 것이다. 또, 숲 체험교육은 숲의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연관관계를 담아내야 한다. 우리는 자칫 잘못 이해하여 숲 생태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나 보존만이 숲을 위하고 인간을 위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과 숲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각은 ‘숲을 가꾸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숲 체험 교육에는 지속 가능한 숲 가꾸기에 대한 이해와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숲 체험 교육을 통해 숲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동시에 숲에서의 놀이 학습을 통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숲 체험 교육은 숲이 나무와 초본 등 식물들만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목재를 이용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숲 체험교육은 어떻게 숲이라는 자연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을 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숲의 지역적인 특수성과 역할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고, 이것은 현장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비환경 친화적 일상과 전 지구적 환경문제는 생태교육이라는 필수적인 영역을 만들어 냈고, 생태교육은 직접적인 체험과 스스로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생태교육은 숲이라는 자연을 직접 만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고, 생태교육을 통하여 숲을 보호하고 가꾸려는 이해가 촉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숲이라는 자연을 통하여 진정으로 자연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접촉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정신 발달에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어린이들은 자연과 접촉함으로써 차별해지고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어린이들은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머리에만 집어넣는 지식은 숲이라는 자연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빈곤하다는 것을! 오감을 모두 활용하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숲 체험 교육은 어린이들이 삶에 필요한 지혜를 숲이라는 자연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한다.

숲 체험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모든 감각기능을 통해 숲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숲

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손으로 나무를 만지고, 맨발로 숲의 토양을 밟게 되며, 귀를 기울여 새소리를 들어 보고, 각종 꽃들과 초본들의 향기에 취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여기에는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교육자가 필요하다. 누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합할까? 숲 생태계라는 멋진 공연장으로 이끌고 갈 사람은 무엇보다도 숲을 전공한 전문가이며,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자, 숲 체험교육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다. 숲 체험교육은 교실이 아닌 숲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숲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삶의 관계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숲 체험교육 현장을 이끄는 교육자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그 교육 내용 속에 담아야 할 것이다.

현장 교육을 통해 만난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한 자연현상에 경이로움을 표하는 것을 보고 새삼 놀라는 경우가 많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배우고 익혀 지식을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연이라는 공간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새롭다는 듯 질문을 던진다. 그때마다 그들이 배웠다는 지식이 어떠한 것이며, 또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들은 자연 안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과 발로 접촉하며, 코로 냄새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발견하며 세상을 이해한다.

자연은 변화무쌍하고 다양하며 그 안에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기에 자연을 책속에 담을 수 없고, 또 책을 통해 자연을 배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 이해했다는 것은 오로지 자연을 설명한 그 글을 이해한 것이지 체험하지 않은 지식 이상의 것은 될 수가 없다. 책은 맛과 소리, 색깔을 상상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뿐 진정한 자연의 오감을 담을 수 없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 생명체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아이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 주며, 이것이 바로 창의력을 키우는 불씨가 될 것이다.

자연에 대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관심과 욕구도 증가한다. 자연환경을 이해하면서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발견하고, 직접적이고 감각적이며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집약적인 사고를 한다. 결국 이를 통해 얻어지는 생생한 체험의 기억과 창의력은 결국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자의식을 일깨워 준다. 자연환경을 체험함으로써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체험과 더불어 진행되는 생태교육은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인격 혹은 인품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장체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미 제도권 교육에 체험교육이 의무화 되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과 교육자 양성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생태교육이라는 고유한 성격이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직접체험하면서 배우는 체험교육은 학습효과가 이론교육보다 7배나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체험교육의 교육적 효과가 높은 만큼 현장에서의 교육을 올바르게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히 자연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흥미롭고 깊이 있는 교육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흥미를 유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현장교육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는 항상 일신우일신하는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이 자연 안에서 뛰어 놀면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태교육의 교육과정은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중요하다. 자연환경의 체험은 다양한 성품을 지닌 어린이들이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자연체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생생한 체험의 기억과 창의력은 결국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아의식을 고취시켜준다.

그러므로 생태교육은 자연과 인간의 분리에 기초한 기존의 과학관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을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인격 또는 인품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다.

생태교육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들을 환경에서부터 나아가 자연을 이해하면서, 자신과 환경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즉 인간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 사고의 범위를 넓혀 가기 때문에 교육은 최종적으로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을 적극적인 자세로 체험하고, 감지하며 파악한다는 것은 자연 안에 공존하는 여러 가지 사물의 연관관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유기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야말로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즉 생활공간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며 생태교육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남효창, 2015).

2. 숲유치원 필요성

인간에게 움직임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기복적인 행위이며 기초적인 감각을 인식하는 배움의 동작이다. 그러나 현대교육은 아이들에게 동적 활동보다는 파편화된 지식섭렵을 위해 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극히 수동적인 삶의 방식은 조그마한 불편함도 참아내지 못하는 나약한 아이들로 자라게 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지녀야 할 전제조건은 어떠한 삶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새로운 대안교육으로 부각되고 있는 숲 유치원은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함축하고 있다. 생태대안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숲 유치원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장희정, 2013).

1) 야성을 일깨우고 자기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숲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데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마음껏 움직이며 자신 안에 잠재된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야성을 발견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성은 억압되지 않은 움직임으로 행동실천의 결과 범위를 인식하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을 말한다. 야성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점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보려는 시도를 하는 힘을 얻게 된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을 때 내면의 욕구를 행동으로 실행하고 감정으로 표출하는 것의 절제가 가능해 질 수 있다. 감정 조절 능력은 정도의 차이가 다른 여러 상황을 대처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점을 확인하였을 때 형성되는 것이다. 숲에서 처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숲유치원 아이들은 자기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2) 자연을 통해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현대교육은 절대적 사실을 경험자의 말과 글로 주입하며 사실에 접근하는 방법도 퍼즐 맞추기처럼 하고 있다. 그러나 숲 유치원은 부분에서 통합으로 가는 이러한 기존의 사실 접근 방법과는 달리 사실이하의 통합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피교육자가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하고 있다.

사시사철 눈, 비, 춥고, 더움에 상관없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숲 유치원 아이들에게 자연의 변화는 피부로 코로, 귀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을 느끼고 인지하는 당연한 일과이다. 숲과 인간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안다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

3)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운데 성취감을 느끼고 자립심이 생긴다.

우리나라의 교육현황을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님들이 세워준 학습계획표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과로 분주하다.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이러한 생활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이 지극히 수동적인 생활이 연속되면서 아이들의 주체적인 판단능력과 자립심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숲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자유놀이 시간을 주며 숲에 널려있는 자연소재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상상하는 놀이를 구체화해 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도록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한 결과를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안다.

숲에서의 활동은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반복되고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판단 능력은 향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복된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결과를 통해 아이들은 진정한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성취감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으로 자신감을 키워주는 왕도이기도 하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자립심을 키우는 근간이다.

4) 충분한 활동으로 건강한 육체와 강한 정신력 그리고 창의성을 키운다.

현대화로 아이들 놀이 공간이 회색 빛 건물과 주차장으로 변해가면서 점점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린다. 대부분의 시간을 닫힌 공간에 갇혀 생활하는 아이들의 성격이 공격적이 되고 감기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는 것은 굳이 과학적인 통계가 없이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숲은 아이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넓은 공간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적합하다.

5) 긍정적인 사고와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핵가족제도가 정착된 후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이들이 공동체성을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바쁘게 생활하면서도 지극히 단순한 생활구조 속에서 일방적인 소통만 가능한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아이들의 놀이 대상이 되면서 일어나는 컴퓨터 중독과 주의력 결핍 등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들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과 치유방법을 숲에서 찾으려는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숲 체험원에서는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우울감, 불안감, 자아 존중감 등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숲체원 홈페이지 참조)

아이들이 무엇이든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주어야 한다. 숲에서는 세분화되고 파편화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연의 총체적인 사실을 인지하는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기르는 교육방법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관조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의 토대인 풍요로운 감정과 감각적인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지속가능 발전(ESD)과 숲 체험활동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케 하는 숲 교육은 지속가능한 미

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이다. 우리는 지능가능 발전교육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숲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숲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교육의 힘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교육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이선경 외, 2005). 특히 가치와 신념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출발점으로 매우 적절하다(GMV,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숲 체험 활동을 유아기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제로 제시해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주의 유아교육, 그 중에서도 숲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덴마크에서부터 시작한 숲 유치원은 말 그대로 숲을 교실삼고 교재삼아 유아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숲 체험 활동에서 유아들은 푸른 하늘 아래서 흙을 밟으며, 나무, 꽃, 풀, 곤충 등의 온갖 자연과 마주하며 놀이하고 성장한다. 이는 점차 자연에서부터 멀어지고 문명에 중독된 현대 유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숲 체험 활동은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교육과정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누리과정,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의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즉 숲 체험 활동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접목하여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는 통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아의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숲 체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자연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생명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배려 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뿐 아니라 사람-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의 태도를 확립하게 된다.

이러한 숲 체험 활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행동의 촉구’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장(場)으로 매우적합하다. 유아교사는 숲 체험 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그 효과에 대해 인지하고 유치원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유아들이 자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크게 환경,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이 세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 중에서도 환경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 가치이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서도 환경교육의 내용이나 전통이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이선경 외, 2005).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 적합한 환경교육은 ‘환경의 보존’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의 개념을 포함한다. 만 5세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가치 중 하나인 ‘녹색성장’ 역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진취적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누리 과정에서는 시대적 · 국가적 요구에 따라 녹색성장교육의 가치를 교육 목표와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녹색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한 녹색생활의 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유아기에 가장 적합한 녹색성장 교육의 방법은 ‘자연을 체험’ 하게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숲은 자연의 요소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면서 유아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서 녹색성장교육을 위한 장으로 적합하다. 숲을 방문한 유아들은 오감을 통하여 숲을 경험하고 느낀다. 온 몸으로 숲을 만나는 유아들에게 자연은 더 이상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숲과 더불어 놀이하고 성장하는 유아들은 자연을 삶의 일부로,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다.

숲 체험은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써의 자연친화 교육이다. 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감각적 자극은 유아의 내면에 있는 생태적인 감수성을 자극한다. 숲에서 느끼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한다.

지속적으로 숲을 찾는 유아들은 생태계의 파괴와 그에 따른 문제점 역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여러 생명체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후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할 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유아기는 그 기초를 닦는 시기이다. 유아기에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숲 체험 활동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녹색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영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유아교육계에서는 현대 유아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으로 자연주의 유아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숲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본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자연 속에서의 놀이를 잃어버리고 그로인해 아이들이 암암리에 아이다움까지 상실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에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곽노의, 2014).

4. 숲 유치원의 교육적인 효과

유아기에 숲을 감각적,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숲 활동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다. 숲을 몇 가지로 범주화하여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만남의 숲

숲에는 실내공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만남이 유아를 기다린다. 숲에서의 만남은 ‘변화무쌍한’ 만남이다. 숲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의 움직임, 붉게 물드는 진달래의 색 그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때문에 유아들은 새로운 만남에 다한 기대감을 안고 숲으로 간다. 또한 그 만남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숲에서의 만남의 ‘감각적인’ 만남이다. 숲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는 유아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하며, 이러한 자극은 잠자고 있던 감각과 지각을 깨어나게 한다. 유아들은 시각을 통하여 숲의 다채로운 색을 만나고, 청각을 통하여 숲의 평화로운 소리를 만나며, 촉각을 통하여 숲을 몸으로 만난다.

특히 오감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이해하는 유아기에 풍부한 감각적 자극이 존재하는 숲에서의 활동은 발달적으로 적합하며 가치 있는 교육적 경험이 된다.

2) 관계의 숲

자연은 모두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 중 다른 생물과 관계하지 않은 생물은 단 한 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그는 또 끝벌레 사라지면 인류는 대략 4년 안에 멸망한다고 했다. (남효창, 2011에서 재인용), 숲 활동을 통해 자연의 관계성을 인식한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3) 창의의 숲

놀이의 방법과 기능이 정해져 있는 일반 놀잇감을 활용한 놀이에서 유아에게는 대상에 대한 창의적인 기능을 부여하거나 독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는 유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요구한다. 유아 스스로 자연물에 기능을 부여할 때 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 지혜의 숲

유아들 역시 자연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활동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많은 것을 배워나간다. 유아들은 숲 활동의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고 도전과 모험을 시도하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진정한 교사’인 자연으로부터 얻는 문제해결경험은 유아들에게 살아있는 지혜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나 지식보다 효과적인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력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

5) 건강의 숲

현대의 유아들이 자연에서 멀어지고 있다. 자연으로부터의 격리는 아토피, 면역력 약화 등의 병리현상들을 낳았다. 위스콘신대 소아과 교수인 제임스 건 박사는 적당한 불결함을 오히려 이롭다고 했다. 어느 정도의 세균과 진균에 노출되어야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뉴스위크, 2006). 숲에서 흙을 접하는 경험은 면역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아토피, 천식 등의 신종 질병으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해줄 것이다.

6) 치유의 숲

숲에서는 각종 질환들이 치유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숲 활동을 통해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증상이 완화된다는 보고를 국내외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숲에서의 ADHD 치유 효과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유아들은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스스로 충분히 움직였다고 느껴야만 비로소 차분해질 수 있다. 즉,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움직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유아들은 숲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자신의 키보다도 높은 나무를 오르고, 언덕을 오르내리고, 커다란 나뭇가지를 옮기면서 온 몸의 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움직임의 시간이 있은 후 유아들은 무엇인가 집중하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

5. 세종시 숲 유아교육기관 활동 현황

1) 세종시 어린이집 일반현황 (*15. 6. 1 기준)

구분(유형별)	세종시 전체 원	세종숲유치원협회 원	비고
국공립 어린이집	8	5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8	8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	4	
민간 어린이집	49	4	
직장 어린이집	11	1	
가정 어린이집	102	0	
유치원(사립)	3	3	
소계	185	25	

*단설, 병설제외

2) 숲 활동 참여교사 및 원아 수 (*15. 6. 1 기준)

구분(유형별)	숲 활동 참여교사	숲 활동 참여아동	비고
국공립 어린이집	48	13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68	64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64	358	
민간 어린이집	35	529	
직장 어린이집	25	235	
가정 어린이집	0	0	
유치원(사립)	15	225	
소계	225	2,121	

*단설, 병설 유치원 제외

3) 유아 숲 교육장소 이용현황

- (1) 충남산림환경연구소(산림박물관)
- (2) 충북산림환경연구소(미동산 수목원)
- (3) 교원대학교 부설 유아환경교육원
- (4) 광덕산 유아환경교육원
- (5) 오봉산, 운주산
- (6) 기타(공원, 자가, 사유림,....)

4) 숲 교실 운영형태

- (1) 매일 형 숲 교실
- (2) 접목 형 숲 교실
- (3) 체험 형 혹은 숲의 날 숲 교실

5) 숲 프로그램 현황

계절별	주 제	활 동
봄	만남(숲, 친구, 자연, 봄, 기후 등)	숲과 만나기(안전교육, 예절), 친구 나무 찾기, 오감으로 느끼기, 비 오는 날 의 숲 느끼기, 나무의 심장소리듣기.
여름	생명(자연의 변화, 여름에 만나는 동식물, 바다, 물, 환경 등)	자연 느끼기(나무, 하늘, 바람 등),생명만 나기(애벌레, 곤충, 식물 등). 자연체험놀이(황사를 막아라 등)
가을	결실(생명의 순환, 생명과 만남의 결실, 생명들의 겨울준비)	생명의 순환(나고 자라고 죽음). 식물의 씨앗과 열매, 결실에 대한 감사
겨울	만남과 헤어짐, 새로운 시작	자연의 겨울나기, 눈 놀이 등

6) 숲 프로그램 하루 일과

❖ 일과운영

시 간	내 용
07:30 ~ 09:30	등원 및 자유놀이
09:30 ~ 10:00	숲에 갈 준비하기, 오전 새참
10:00 ~ 10:30	어린이집에서 숲으로 이동
10:00 ~ 12:00	<p>오전 숲 생활</p> <p>자연과 인사나누기 / 동시나 줄을 글 듣고 이야기하기 놀이장소 걸어가기(안전용품뿌리기) / 오늘 하기로 한 활동 소개 오늘의 대장 뽑기 / 대장이 인원 세어보기 중간놀이장소 한번 더 확인하기 / 이동하면서 관찰하기 종소리나 피리소리 듣고 중간지점에서 만나기 중간지점에서 다시 인원체크 / 다시 자유롭게 이동 / 손 씻기</p>
12:00 ~ 13:00	점 심
13:00 ~ 15:00	오후 숲 생활 및 어린이집으로 이동
15:00 ~ 16:00	정리 및 오후새참
16:00 ~ 19:30	바깥놀이 및 하원

숲학교 일과 진행



봄에 볼 수 있는 생물들



나무를 이용해 놀이해요1



울긁불긁 물든 나뭇잎을 이용해 놀이해요



7) 일반유아교육기관과 숲 유아교육기관 비교 (예)

일반유치원(어린이집)교육	숲유치원(숲어린이집)교육	비고
양계닭식 유아교육	토종닭식 유아교육	
교사주도 유아교육	유아주도 유아교육	
수업중심 유아교육	놀이중심 유아교육	
언어·교재중심 유아교육	감각·체험중심 유아교육	
지식주입식 유아교육	생활중심 유아교육	
자연·놀이·아이다움을 잃어버린 유아교육	자연·놀이·아이다움을 되찾아주는 유아교육	
아이죽임·생명 죽임의 유아교육	아이살림·생명살림의 유아교육	
아이들의 몸·마음·영혼을 아프게 하는 유아교육	아이들의 몸·마음·영혼을 치유하는 유아교육	
아이들의 육안·심안·영안을 닫아버리는 모방교육	아이들의 육안·심안·영안이 열리는 창조교육	



숲 유아교육 기관 중점 교육활동



첫째, 체험하며 느끼기- 설명은 다음...

아이들은 숲에서 보는 다양한 자연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묻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호기심에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거나 이름을 알려주는 대신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오감을 통해 느껴보는 것이 더욱 의미 있겠지요.

교사가 숲에 대해 지식적인 것을 주기 보다는 더 많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둘째,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 애들아!! 나무나 꽃, 열매들은 필요한 만큼만~^^

숲에 가면 흔히 접할 수 있는 꽃과 나뭇잎, 나뭇가지, 열매들...혼합 속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무의식중에 따서버리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 사소한 자연물들이 더불어 아름다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아름다움은 우리들이 지켜줘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돕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지내는 것을 즐기고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아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III. 세종시에 대한 정책제언

1.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정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0호, 2011.7.25. 제정. 시행 2011.7.26)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2호)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연친화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강원도 조례 제3806호, 2015.1.2 제정시행. 강원도시행규칙 제3002호, 2015.7.10 제정시행. / 충청남도 아산시 조례 제1339호, 2015.5.6 제정시행.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원활한 지속가능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에 맞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칭 ‘**세종시 유아 숲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 하고자 한다.

2.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운영

유아 숲 체험원이란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오감으로 숲의 요소들을 느끼고 탐색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말하며 현재 23개소가 운영중이며, 산림청은 2017년 까지 유아 숲 체험원을 25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급격한 도시팽창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에서도 가칭 ‘**세종 유아 숲 체험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제언 하고자 한다.

3. 세종시의 산림자원 이용환경조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자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하며, 유아가 자연(환경, 생태, 숲,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 소유 산림을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유아에게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성인만 행복한 세종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짊어질 유아도 함께 지속가능한 유아교육을 위해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IV. 맺는말

현대 사회는 나날이 규격화 산업화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유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타고난 순수함을 성장발달 시켜나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즉 오늘날의 유아들은 문명의 이기와 TV의 영향 등으로 운동부족 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로 정상적인 발달이 장애를 받고 있으며, 갈수록 자연에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아들을 위해 숲 체험활동이 좋은 교육적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개최를 통해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린아이들을 왜 자연으로(숲으로) 데리고 나가야 하며, 숲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터득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인들의 선물인 자연(숲)체험 교육이 아이들에게는 드넓은 자연환경 속에서 각자 큰 꿈을 키워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지길 기대하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이 유용하게 활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환경교육 활성화 제언』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권규 상임회장

세종시환경교육센터 설립(안)

2015년 9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 차

I. 환경교육센터 개요

1. 법적 근거
2. 환경교육센터의 정의/유형/기능

II.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사례

1. 각 시/도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
2. 국가환경교육센터
3. 경기도환경교육센터
4.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III. 환경교육센터 지정 요건

1. 환경교육진흥법상의 지정 요건
2. 환경부 가이드라인
3. 경기도 및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지정 요건

IV. 세종시환경교육센터 지정 제안

I

환경교육센터 개요

1 법적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지정)

- 제1항 :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¹⁾할 수 있다
- 제2항 :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지정요건)

- 제1항 :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제3항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항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지정세부요건)

1) 환경부에서 2014년에 진행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는 '지정'을 '설립 및 지정'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시 되었으나, 2015년 8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개정안(김을동 의원외)에서는 그대로 '지정'으로 하고 있음.

2 환경교육센터의 정의/유형/기능²⁾

□ 환경교육센터의 정의

-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력, 자원, 프로그램 등을 보유, 관리, 지원하는 교육시설(이재영, 2003)
- 사람, 시설,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교육/양성,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3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시설(광덕산환경교육센터, 2009)

□ 환경교육센터의 유형

유형 구분	특성	국내 사례
장소 중심형 (자연학습원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해설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건립 -시설물의 설치를 줄이고 장소적 특성과 자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주력함 -상대적으로 탐방로와 안내판이 중심적인 시설을 구성함 -국립공원, 습지, 동굴 등에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환경교육센터 (경북자연환경연수원) -강원도환경교육센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전남환경교육센터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시설 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도시 지역에 위치, 이용자 접근성 높은 반면 시청각 매체 의존도 높음 -전시장, 강연장, 자료실 등 시설물을 위주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유아환경교육관 (서울 환경보전협회)
프로그램 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히 가치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대교모의 시설도 건립하지 않는 대신 산재한 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초점 -시설 관리나 유지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 다양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고 프로그램이 불안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보전협회) -경기도환경교육센터 (경기환경보전협회) -사)환경교육센터 -사)부산환경교육센터
종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밀한 의미의 환경교육센터라고 할 수 있으며, 위의 3가지 유형을 동시에 또는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환경교육센터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강화갯벌센터

2) 김문옥, 2015 「환경교육센터 운영요소 및 상대적중요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환경교육센터의 기능

○ 환경교육진흥법 : 제16조 1항의 각호

-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각 시·도 조례에 규정된 환경교육센터의 기능³⁾

구 분	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제8조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7.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8.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9조	1. 도민에 대한 교육 실시 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수요조사 5.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 교육 지원과 조정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의 사업⁴⁾

- 환경교육 정보 취합 및 제공
- 환경교육 기관·단체 컨설팅
- 환경교육전문인력 양성
-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보급

3) 2015년 8월 현재 세종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제정 시행 중이며 그중 부산시와 충청남도 사례만 발췌함.

4) '충청남도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공고'(2015년 3월, 충청남도 공고 제2015-2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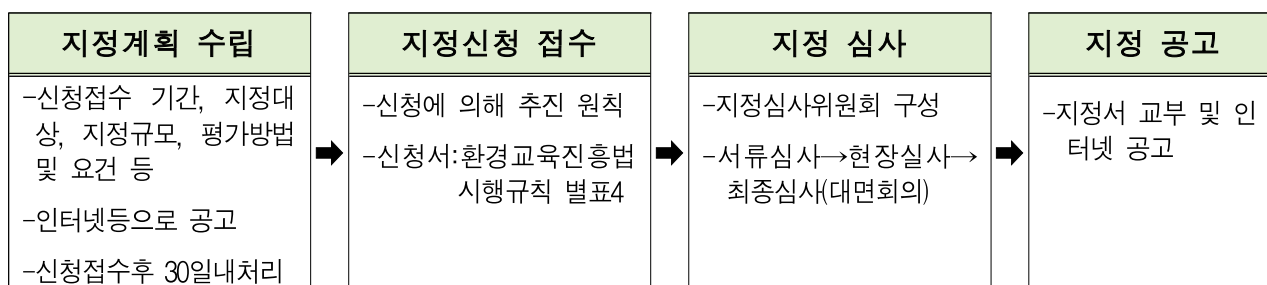
○ 환경교육센터의 기능 상세화(이재영 2003)

기능		세부기능
교육양성 기능	시민교육 기능	교육
		전시
		홍보
	전문가 양성 기능	전문가 양성
연구개발 기능	조사 연구 기능	인턴십, 자원봉사제
		생태 및 환경조사
	개발 보급 기능	환경교육 연구
		프로그램 교재 개발
네트워크 기능	의사소통	프로그램 교재 보급
		정보, 자료 제공
	컨설팅, 평가	정보 교환
		컨설팅
		평가

II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사례

1 각 시/도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

2015년 8월 현재

□ 환경교육센터 지정 절차⁵⁾

5)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가이드 라인' (2014년)

□ 환경교육센터(광역) 지정 현황

지역	기관명	지정일자 (지정기간)	지정 방법	기관유형	비고 (센터유형)
경기도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2015.1.1~2017.12.31	공모 및 심사선정	법정법인	프로그램형
충청남도	광덕산환경교육센터	2015.3.30. (2015.3.30~2017.12.31)	공모 및 심사선정	비영리민간단체	종합형
전라남도	(재)국제청소년교육재단 (전남자연환경연수원)	2013.8.21 (2013.9.1~2018.8.31)	신청	재단법인	장소중심형
강원도	강원도자연학습원	2015.3.13~2018.3.12	공모	도청 소속기관	장소중심형
	한국DMZ평화생명동산	2015.3.13~2018.3.12	공모	인제군소속기관 (민간위탁)	장소중심형
경상남도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2015.03.13 (없음)	신청	경상남도 사업소	장소중심형

2 국가환경교육센터

※ 사무실만 있는 형태로 환경교육센터 유형 중 ‘프로그램중심형 센터’ 임.

□ 지정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 개요

- 위탁 단체 : 환경보전협회(환경부 법정법인)
-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층
- 예산 : 600,000천원(2015년, 전액 국고)
- 조직 구성
 - 센터장 : 최돈형(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 사무처장 김운식 외 25명⁶⁾
 - 실무책임자 : 장영효 과장(환경교육 박사 수료, 010-9816-9877)

6) 국가환경교육센터 예산으로 운영 중인 인원은 3명이며, 기타 인원은 환경부 환경교육사업(푸르미이동교실, 유아환경 교육관 등등)으로 인한 인원임.

□ 연혁

- 2012년 10월 22일 : 환경부로부터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환경보전협회, 2년)
- 2013년 2월 : 운영지침 마련 및 운영위원 위촉(환경부)
5월 : 국가환경교육센터 개소식
- 2014년 12월 23일 :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재지정(환경보전협회, 3년)

□ 주요 사업 (비전 및 목표, 과업)

- 국가수준의 환경교육 기획과 연구
- 환경교육 주체간 연계와 협력 지원
- 환경교육 관련 정보 허브
- 환경교육 인력의 양성과 지원
-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과 개발 및 보급
- 환경교육 관련 기타 사업

3 경기도환경교육센터

※ 사무실만 있는 형태로 환경교육센터 유형 중 ‘프로그램중심형 센터’ 임.

□ 지정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경기도환경교육진흥및지원조례 제15조

□ 연혁

- 2014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위탁 운영
- 2015년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위탁 운영(3년)

□ 개요

- 위탁 단체 : 경기도환경보전협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 위탁 기간 : 2015년 ~ 2017년 (3년)
- 2015년 운영예산 : 400,000천원(국비 200,000천원, 도비 200,000천원)

○ 직원 수 : 3명(환경교육 박사1명, 석사 1명)

– 실무책임자 : 김희경 과장(환경교육 박사, 031-253-0312)

□ 주요사업(2015년)

○ 정보서비스 : 홈페이지, SNS, 편람 제작, 보급

○ 컨설팅 : 모델 개발

○ 인력 양성 : 사회환경교육 연수, 학교환경교육 연수(교육청 교사 연수 협력)

○ 교육자료 : 조사, 보급, 프로그램, 교재, 교구 개발

○ 네트워크 : 전문위원회, 학교·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오픈컨퍼런스, 포럼 등

○ 기타 : 홍보, 평가

□ 참고 : 경기도내 환경교육센터 현황

○ 광역환경교육센터(1개소)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지자체, 6개소) : 수원, 안산(2), 화성, 고양, 양평

○ 각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

4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 지정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충청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 제9조

□ 연혁

○ 2013년 3월 : 충청남도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지역, 2개소)

– 제1호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제2호 : 서천조류생태전시관

○ 2015년 3월

–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지정(광역, 1개소)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3년

– 충청남도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지역, 1개소 추가) :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 개요

- 위탁 단체 : 광덕산환경교육센터(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안심대길 50)
- 위탁 기간 : 2015년 4월~2017년 12월(3년)
- 2015년 운영 예산 : 없음, 2016년 예산 400,000천원 편성(국비 50%, 도비50%)
- 직원 수 : 6명(환경교육 석사 3명)
 - 실무책임자 : 김문옥 사무차장(환경교육 석사, 010-8836-8050)

□ 주요 사업(2016년 사업계획)

- 환경교육정보 제공 서비스 : 충남환경교육정보지 제작 배포
- 환경교육 기관·단체 컨설팅 : 워크숍, 연수
-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 충남환경교육지도자 양성
-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 충남생태교육교재 개발, 보급
-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 충남환경교육한마당, 한국환경교육한마당, 충남환경교육 소식지 발행
- 도민환경교육

□ 참고 : 충청남도내 환경교육센터 현황

- 광역환경교육센터(1개소)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지역환경교육센터(3개소) : 광덕산환경교육센터(1호), 서천조류생태전시관(2호), 금강생태과학체험장(3호)

Ⅲ 환경교육센터 지정 요건

1 환경교육진흥법상의 지정 요건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15조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제4조 및 제5조

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세부 지정요건

1. 대상 기관·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3. 인력

-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2 환경부 가이드라인

2.1 지정요건

- 법적 지정요건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
 - 지자체에서 위탁사업, 역무대행 등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소속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법적 지정요건 외에 아래 예시와 같이 광역시·도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 규정 등을 통해 세부 요건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음
 - 강의실, 실습장 등의 적정 면적 기준
 - 필수 교육장비(빔 프로젝트, 음향장비, 기타 교보재 등) 구비 여부
 - 전문 인력(전공, 환경교육경력 등) 기준 등

2.2 지정기간

- 법적 지정기간 : 현행법상 지정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 ※ 참고)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임
- 광역시·도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 규정 등을 통해 지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지정연장 등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함
- 지정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실운영 방지 등을 위해 지역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이 미흡할 경우 경고,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경기도 및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지정요건⁷⁾

※ 자격 조건이 동일함.

7)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경기도 공고 제2015-192호), 충청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계획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15-200호)

가. 대상 기관·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일 것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 한 법인
- ③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 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시설 및 장비

- ①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교육시설(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 ②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보유할 것

다. 인력

- ①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②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참고 및 고려사항

○ 경기도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함. 즉 ‘사무위탁’으로 진행함.
☞ ‘지방재정법’과 관계없이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가능함.

○ 충청남도

- 「환경교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를 지정 함.
☞ 현행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센터 지원은 가능하지만 ‘운영’이라는 표현이 없어 운영비 지원은 어려움.
단,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김을동 의원외)에는 ‘운영’ 표현이 들어감.

IV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제안

□ 법적 근거 및 지정권자

○ 법적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별표 1

○ 지정권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 지정 기간 : 3년

□ 지정 절차 및 내용 :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지정’이기에 별도의 시설 설립이 필요 없음.

□ 운영 예산

○ 경기도 사례

- 2014년 자체 도비로 환경교육센터 예산 2억 수립하여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 이를 근거로 2015년 국비 2억원이 환경부에서 수립되어 지원됨

『세종시 환경교육 기반구축 및 제도화 제언』

충남 환경교육네트워크 차수철 운영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기반 구축 과제

차수철(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광덕산환경교육센터)

[들어가는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UN은 ‘2005년부터 2014년을 환경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설정하고 UNESCO를 통해 지구적 인식 증진과 활동을 벌여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1995년 6차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환경과목을 독립교과로 편성해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해 왔다. 또한 2008년 환경교육 진흥법 제정을 통해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환경교육센터’지정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될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국가와 광역 시,도 단위에서 수립하도록 제도화 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의 환경과목 채택율은 10% 초반으로 미미하고, 최근 2015년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듯이 ‘환경’은 여전히 민주시민, 지구 시민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에 안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 등에서 환경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은 실로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 수원시와 같이 ‘환경교육시범도시 선언’과 충청남도의 ‘환경교육헌장’ 제정과 같이 환경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 사례가 차츰 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환경교육은 지구 시민을 위한 필수적인 소양이자 덕목이며, 지역사회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세대와 지역, 계층과 이념의 갈등까지도 해결해가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종시 환경교육 기반구축 과제]

1. 지역 환경교육 협력 체계 구축

- ‘세종환경교육네트워크’추진(시,교육청,NGO,기업,유관 기관 등)
 - 지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종합계획 제안, 정보교류 등
- 사회-학교 환경교육간 연계성 강화
 - 창의적체험활동,방과후환경학교,환경동아리, 환경프로젝트 수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학교-사회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 생태교육 역점 혁신학교 모델 연구,개발

2. 지역 환경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 세종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
 - 5년 단위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비전, 과제, 추진전략, 실천 사업, 추진 체계, 재정 운영 계획까지를 포함
 - 예산 1% 목표 환경교육 재정 계획 수립
- ‘환경학습도시 세종’ 등 환경 비전 선포
 - 환경교육을 통한 지역 지속가능성 증진 방안 관련 장기 비전 마련
- 세종 ‘환경교육진흥조례’,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 사회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함

3. 세종 환경교육 기반 구축 실행과제 추진

- 세종 환경교육센터 설립
 - 세종의 환경, 지역 특성을 주제화 한 환경교육센터 설립(지정)
 - 기존 시설 활용 또는 특성에 따른 센터 설립 방안 검토

- 세종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 역량 강화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양성, 배치(금강, 도시공원 등)
 - 환경교육 지도자, 관리자,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세종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지속적으로 추진 활용 가능한 세종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보지, 소식지 발간
- 시민 참여 환경교육축제 추진
 - ‘도원문화제’, 전의‘왕의물/조경수축제’등과 연계한 환경한마당 개최

[나오는 말]

지속가능한 세계적 환경수도를 자처하고 있는 세종시의 성공 여부는 친환경적 도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과 공생을 목표로 한 시민의 참여적 환경 실천에 달려 있다.

환경 일반에 대한 인식과 기능적 체득, 나아가 삶의 공간에서부터 출발하는 환경 실천은 바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시민 환경교육을 통해 달성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금강과 장남평야, 금병산 등으로 대표되는 천혜의 자연 자원과 시민의 환경 의식이 연계된다면 세종은 그야말로 세계적 환경수도가 될 것이다.

이제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교육을 넘어 우리 사회 삶의 질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행정에서도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다.

V. 참여 연구진 정책 제언

V 참여 연구진 정책 제언

정준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의원)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환경교육을 통해 쾌적한 도시 만들자”

세종시는 대대적인 신도시 건설과 일부 지역의 난개발 때문에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환경’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즈음에 공교롭게도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되어 환경교육 연구모임 중책을 맡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가끔씩 떠오르는 옛날 모습이 그립습니다.

큰길 지나 시냇가에서 물놀이하고 여기저기 들판을 지나 골짜기에서 가재 잡고 논가에 죽 늘어선 두꺼비 알로 놀라던 그 때를요.

이런 기회를 통해 의원이기 전에 시민인 정준이를 뒤돌아 보게 되네요.

올 초에 시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대표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환경 사랑에 뜻을 가진 회원을 모집하고 함께 중의를 모아 연중 계획을 실천 하면서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와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으로 법적 제도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시작했습니다.

1차에는 환경교육 연구모임의 출범을 계기로 자연이 숨 쉬는 도시환경 조성을 앞당길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2·3차에는 급속한 개발사업으로 환경문제에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가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되어 빠른 제도적·법적기반을 구축해야겠다고 다짐하였고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방문을 통해 우리시 환경교육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알찬 기회를 갖고 우리시에도 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토대를 빨리 구축해야겠다고 기쁜 다짐을 했었고,

4차에는 세종시 사회와 학교의 자원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환경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등 참석한 위원들과 열띤 토론을 가졌습니다.

5차에는 공주대학교 이재영교수의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기관단체장들과의 열띤 토론으로 “세종시 환경교육 조례 제정”과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6차에는 토론의 좌장으로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를 초빙하여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필두로 세종시청 환경정책과장, 행복도시 건설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 세종시 교육청 창의진로과장 등 관련부서장과 환경전문가, 시민 100여명의 참여속에 세종시 건설지역, 읍면지역, 조치원 구도심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향후 종합적인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환경교육 조례안 제정에는 실제적인 환경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중심의 환경교육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청이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근거를 제시하는 아주 괄목할만한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조로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고 지역사회의 자연생태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교육 발굴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투자에 아낌없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얼마전 제34회 정례회 시 세종시와 교육청의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초안을 기초로 현재의 지역사회와 여건에 부합하는 조항을 첨삭하는 등 조례안 제정에 종지부를 찍었고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의 향후 공원 조성시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수락하는 것으로 큰 결실을 맺었구요.

매회시 마다 어찌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저 열심히 할 뿐이었는데 이런 훌륭한 작품이 완성되어 발간되다니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모쪼록 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이 발간한 자료가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존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할 세종시를 기대해 봅니다.

“ 전시민 운동단체를 통한 환경계몽 운동을 확산하자 ”

요즘 건설지역은 물론 읍면지역에까지 도시기반 조성으로 여러 곳곳에 원룸촌이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발족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무분별한 엄청난 쓰레기배출로 많은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 해 동안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온 이번 모임에 남다른 애착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매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진정 개발에 집중된 세종시 도시개발 계획에 회의를 느껴 우리의 생활환경과 자연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 영역을 파괴할 수도 있는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요청도 관련부서에 여러 번 요구하였던 차에 이런 중책이 내재된 환경교육 연구모임의 회원으로 일해 온 1년이 가장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연구모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간함에 있어 환경교육 연구모임의 종료라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세종시의회 부의장으로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개발로부터 하루빨리 조상대대로 이어져온 금강변 최대의 황금들판과 산하를 지켜낼 수 있는 전시민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여 계몽 운동을 확산해나갈 새로운 정책 연구를 시작해야하는 시발점이 된 것에 이 모임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신 의원님, 회원님, 관계부서 공무원 등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매달 수 천명씩 증가하는 도시 가정 속에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정책 제언이 많이 수록된 이 보고서가 사람이 자연과 함께 생물 다양성에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와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는 정주여건 개발을 계속 촉구할 것을 약속하며 소감을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회원)

“ 원도심과 신도시지역간 생동감있는 자연친화적 생태도시건설 필요 ”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계절의 끝자락에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함에 여러 기관장님들과 회원님들 모두 자축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시의원 연구모임에 몇 번 참여는 하였으나 이번 과제처럼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우리 시가 풀어나갈 시급한 환경문제를 다룬 것에 다시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세종시 출범기간이 짧다보니 많은 것을 준비 못하고 시작하여 명품도시 위상에 맞지 않는 미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개발의 뒷전에 환경훼손이나 환경오염일겁니다.

이번 연구모임 활동중에 타 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시설들과 비교견학을 진행하면서 우리시도 하루빨리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세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으로 구현해야함을 다짐하면서 이번 제34회 정례회시 세종시와 교육청의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한 것이 큰 성과일겁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모든 문화적 특성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원도심과 신도시지역간 조화를 이후는 균형개발을 위해 생동감있는 자연친화적 생태도시건설 등에 의원으로써 한 목소리 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열일 제쳐두고 세종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이끌어 주신 대표의원 정준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회님, 박경자 YWCA부이사장님, 전석천 세종시청 환경정책과님, 임비호 감사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회의를 도맡아 진행주신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님들 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람과 자연은 하나, 교육이 우리의 미래다”

세종에서 환경교육의 소중한 씨앗이 움트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세종시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이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을 제안하며 한국 환경교육의 새로운 씨앗 하나를 세종에 뿌렸습니다. 과정에 함께한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성과는 몇 가지 부분에서 의의가 큼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광역시의회 최초로 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의원 모임을 만들어 지역 환경교육을 걱정하고 발전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도 제도에서 출발하고 모든 정책의 끝도 제도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례 제정권을 가진 의회가 출선했을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 하나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과정이 지역 사회 주민, 이해당사자,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돼 말 그대로 바람직한 환경거버넌스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교육연구회에는 시의원, 지역 시민단체, 행정, 외부 전문가, 유치원 대표 등 이해당사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지역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후 제도 제정과 운영 과정에서 생산적인 추진 주체로 역할을 감당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종시 환경교육 진흥조례와 세종시 학교 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이 그 취지와 의지의 훼손 없이 제정되었고, 과정에서 만들어진 환경교육 협력 체계를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종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과 ‘세종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세종시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가 순조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환경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환경수도 세종시의 비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회원)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이 오도록”

우선 제가 한 해 동안 몸 담았던 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 모임의 성과물로 활동결과보고서 발간에 남다른 애착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처음에 회원으로 위촉 받았을 때 주부로 YWCA회원으로 여성운동에만 매진했던 제가 유능한 시의원님,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준이 대표 의원님과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속에서 우리 환경을 사랑하고 앞으로 미래사회를 위해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야하고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 점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십년간 Y의 일원으로 사회 봉사활동과 정의와 평화의 사회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사회운동가로 지역자원인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 국토대청결 운동이나 아나바다 운동 등에만 참여하였던 제가 세종시 환경자원을 이용한 향후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정책 연구 모임에 참여하게 된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종시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목적이 환경을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인 환경을 섬기는 생활이 오도록 모든 조직내에 퍼져나가 이사회 변혁의 힘이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석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회원)

“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한다는 친환경생활 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

한 해 동안 세종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의 땀과 노고를 담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신 정준이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위원장님, 박경자 YWCA 부이사장님, 김성미 세종시교육청 창의진로과장님, 임비호 간사님 등 관계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환경보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과 소양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 교육입니다.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저력이 교육의 힘에서 나왔듯이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은 환경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딸이 유치원에서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아 슬퍼하는 북극곰 동영상 보고 난 후 음식을 남기지 않고 물을 아껴 쓴다”는 직원 이야기를 듣고 조기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찾아가는 환경교육,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린리더 양성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추진하여 왔으며, ‘16년도에 세종시 환경교육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환경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의 환경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한다는 시민의식으로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생활 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제언된 내용이 우리시 환경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녹색 공동체를 만들고, 이끌 수 있는 실천의 새로운 단초가 되길”

사회가 발전하고, 역사가 축적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지평은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 지역이나 자국 중심으로 보았던 시야에서 이제는 저 건너편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를 바로 접할 수 도 있고, 다른 나라의 경제·사회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정도로 우리 삶의 지평은 세계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구 공동체의 정상들은 1992년 유엔(UN)에 모여 푸른별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명제를 도출하였는데 이가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다. 발전이란 개념이 단순히 성장만을 말하는 것에서 지속가능한 전제 속에서의 발전으로 한정짓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구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지구 공동체가 우리 자손들도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혜택을 지금처럼 누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 사회, 경제가 상호 관계하는 속에서 지속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아야 하고, 이를 우선적인 가치와 실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 공동체 정상들은 이를 위하여 실천과제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 를 선포하였다. 푸른 별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이제는 자국이나 지역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부족하고, 전 지구적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이라는 삶의 현장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찾아내어 풀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세종시는 지금 9만의 작은 군에서 8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변화하는 초입단계에 들어 와 있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많은 문제들을 안고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유입되면 필연적으로 많은 건물들을 지어야 하고, 많은 개발은 또한 많은 자연의 지형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찾아야 하고,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다. 하여 세종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실천적으로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옛말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 세종시는 지구

공동체의 정상들이 말한 자연, 사회, 경제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세계관은 경제 사회를 전제로 한 교육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새로운 대안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아닐까 한다. 환경에 대한 교육은 우리 공동체와 삶을 어찌 가야 하는지를 통합적으로 공부하고 훈련하는 교육이다.

이런 고민 속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는 정준이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세종시 의회 환경교육 연구모임을 결성하였고, 몇 차례의 현장 방문과 세종시 환경교육 현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환경교육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 활동의 결과이기도 한 두건의 환경교육 조례 제정 발의를 하기도 하였다. 일련의 이런 활동과 결과들이 향후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바램을 아니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 모임을 하면서 나름대로 세종시 미래를 위해서 나도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이제 낙엽이 떨어진 만추의 계절이 되고, 연구모임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좀 더 의욕적으로, 좀 더 활기차게 연구모임을 잘 할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기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실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알고 아쉬움을 접을까 한다.

근 일년의 활동을 하면서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연구 모임을 끌고 나가신 정준이 대표의원님, 장승업, 이충열 의원님, 애정 어린 눈빛으로 세종의 환경교육을 지원해 주신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박경자 YMCA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낌없이 행정지원을 해 주신 세종시의회 천의교 전문의원, 진정옥, 이진례 주무관님, 환경정책과 전석천 과장님, 박선희 주무관님, 교육청 조항선 장학사님 등 협조를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서라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정말 고마웠다고....

이제 끝맺은 인사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환경교육 연구 모임이 단순히 토론과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녹색 공동체를 만들고, 이끌 수 있는 실천의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 안팎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환경교육의 방향이 단순 보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선회하는 데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종에서는 환경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 의회 내에 환경교육 연구모임이 결성되고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일 것입니다. 그 활동에 세종의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환경교육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교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동안 지역단위의 네트워크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준이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종시 의회 내에 환경교육연구회 주도 하에 몇 차례에 걸친 포럼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환경교육과 관련된 조례 제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향후의 세종 환경교육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환경교육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 정준이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차수철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박경자 YWCA부 이사장님, 임비호간사님 등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최고의 환경컨셉을 반영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것”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행복도시가 지난 12년 말을 기점으로 계획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시민들이 필요한 편의 시설들을 갖춰 나감으로써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안정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자긍심을 느낍니다.

행복도시는 세계최고의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세계 유수의 도시 사례들의 장점들인 친환경요소들을 반영하여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투링(two-ring)구조의 환상형 교통망을 통한 대중교통이용 증진, 자전거도로 확충, 사용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활용, 중앙공원 등 녹지율 52% 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는 행복도시가 세계최고의 친환경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 프라이브르크시를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태양광등 에너지산업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률이 독일은 7.2% 반면, 이 도시는 5.6%로 최저의 실업률을 자랑하면서 매년 140만 명의 환경전문가들을 포함한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 어떻게 자리매김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를 이끌어가는 살로몬 시장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큰 원동력은 시민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 주도적인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고 하였습니다.

우리 행복도시 세종도 시민을 대표하는 정준이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환경교육 연구 모임을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우 감사한 마음과 친환경도시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세종의 역사는 비록 일천하지만 세계최고의 환경컨셉을 반영한 도시로 나아갈 것 입니다. 해가 거듭해 갈수록 환경교육연구 모임이 더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세계최고의 친환경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환경교육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인 : 정 준 이

발행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 30033)

편집인 : 천 의 교

자 문 : 임 비 호
